

문화통화 지역사회 연계 발전방안 세미나



일시 _ 2009년 12월 9일 (수)
14:00~18:00

장소 _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주최 _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문화통화 지역사회 연계 발전방안

일시 Ⅵ 2009. 12. 9.(수) 14:00 - 18:00

장소 Ⅵ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

주최 Ⅵ 성남문화재단



◎ 목 차(Contents) ◎

▣ 모시는 글

▣ 프로그램

▣ 기조 강연

- 지역화폐운동의 현황과 과제 1
 -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 발제문

1. 지역통화운동의 의의와 실제 : 한발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16
 - 김성훈 (대전 한발레츠 대외협력실장)
2. 과천품앗이의 시작과 현재 40
 - 김영희 (과천품앗이 운영위원)
3.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의정부 레츠 45
 - 한미경 (의정부 레츠 준비위원장)
4. 나누면 배가 되는 문화생활의 즐거움 : 성남문화통화 47
 - 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모시는 글

우리나라에 지역화폐가 소개된 지도 언 10년이 넘었습니다.

지역화폐제도는 단순히 모자라거나 필요한 물건이나 품을 나누는 ‘경제활동’이 아니라 ‘관계’를 맺고 이어가는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활동, 즉, 인간사회의 가치있는 ‘서로가 함께하는 활동’입니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터인가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는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로부터 인간적인 정과 나눔을 미덕으로 중시하여 왔고, 지금도 그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알고 있고, 또한 우리 후세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역사철학자 데이비드 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바라볼 때 그가 가진 미래상과 과거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

‘미래는 과거와 이어진다’는 말을 굳게 믿는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현재는 또한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인간’이라는 보편적 가치와 ‘전통’이라는 특수성을 모두 실천하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오래된 미래이며 현재’일 것입니다.

지역화폐는 미래와 현재를 창조적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남시는 ‘창조도시’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남시 곳곳에서 창조적 시민들이 문화통화를 통해 문화예술을 이웃과 함께 향유하고, 지역화폐 운동을 통해 창조적인 생활경제를 새롭게 구성해 간다면 모두가 부러워하는 진정한 ‘창조도시, 성남’으로 거듭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목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에 지역화폐를 처음으로 소개한 분과 그동안 척박한 우리 사회의 풍토 속에서도 훌륭하게 지역화폐 운동을 실천해 오신 분들을 모시고 지난 10여년간의 국내 지역화폐 운동을 재조명해 보고 앞으로의 발전방향도 가능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자극과 격려, 그리고 실질적인 의미를 전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세미나 준비를 위해 애쓰신 모든 분께 심심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2009. 12. 9.

성남문화재단

프로그램

사회 : 박승현(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장)

프 로 그 램	
14:00-14:03	■ 개회
14:03-14:13	■ 인사나눔 참가하신 분들의 인사나눔
14:13-14:20	■ 인사말 노재천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박순덕 성남문화통화 운영팀장
기조강연 및 사례발표	
기조 강연 14:20-15:20	■ 지역화폐운동의 현황과 과제 박용남 지속가능도시연구센터 소장
15:20-15:30	휴 식
발제 1 15:30-15:50	■ 지역통화운동의 의의와 실제 : 한발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김성훈 대전 한발레츠 대외협력실장
발제 2 15:50-16:10	■ 과천품앗이의 시작과 현재 김영희 과천품앗이 운영위원
16:10-16:20	휴 식
발제 3 16:20-16:40	■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의정부 레츠 한미경 의정부 레츠 준비위원장
발제 4 16:40-17:00	■ 나누면 배가 되는 문화생활의 즐거움 : 성남문화통화 유상진 성남문화재단 문화기획부 과장
17:00-18:00	질의응답 및 자유토론
18:00	정리 및 폐회

1. 지역통화란 무엇인가

○ 돈이란 어떤 작용을 하나?

돈이란 종류가 다른 갖가지 재화나 서비스를 일률적인 경제적 가치로 평가하여 그것들을 손에 넣는 수단으로 아래와 같이 크게 5가지 기능을 수행함

가. 가치척도 - 원, 엔, 달러처럼 도량 표준에 의해 상품 가격의 단위를 정함

나. 구매수단 - 모든 상품을 살 수 있다

다. 교환수단 - 모든 상품의 교환을 매개한다

라. 결제수단 - 돈을 빌리거나 빌려줌으로써 발생하는 채권이나 채무를 정산한다

마. 가치저장수단 - 가치를 보존하거나 저축함으로써 장래에 대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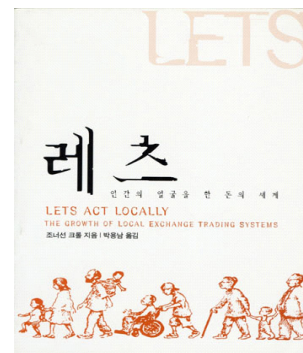
원화와 같은 국가통화는 위의 모든 기능이 반드시 한 세트로 되어 있어 '전목적(全目的) 화폐'라 부름

○ 지역통화란?

- 간단히 말하면, 지역통화란 '사람들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든, 일정 지역에서 밖에 통용되지 않으며 이자가 붙지 않는 돈'을 뜻함

● 지역통화의 특성

1. 시민 내지는 시민단체에 의한 자유발행과 운영비용의 공유
2. 비교적 소규모의 유통권역을 갖고 있고, 국가통화와의 환금 불가
3. 무이자 또는 감가(마이너스 이자)



- 인간의 얼굴을 한 ‘공동체 돈’ 또는 ‘공동체 화폐’라 불리고 있는 지역통화에는 2가지 측면이 결합되어 있음

- 경제적 측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순환형 경제의 확립, 신용창조와 자본축적의 저지와 같은 것을 실현하는 경제적인 조직원리임

- 윤리적 측면: 호혜적 교환을 통해 상호부조적으로 공동의 관계나 윤리를 재건하는 수단

→ 두 측면을 함께 지니고 있어 자본주의 경제를 그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대항 양’(‘대안운동’)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최근 받고 있음
(니시베 마코토, 홋카이도대학 교수)



○ 지역통화가 주목 받는 이유(1)

- 1990년대 이후 선진국을 비롯해 세계 전역에서 지역통화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를 요약하면 크게 2가지로 분류될 수 있음

● 경제적 요인

1. 공정한 교환과 지역경제의 활성화

- 지역통화가 불황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화폐 부족과 고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처방전으로 인식되어 급부상

2. 지구화 시대의 안전망

- 글로벌 시장의 투기 또는 머니게임으로부터 지역경제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하는 기반 구축

3. 지구화에 대한 대항 미디어

- 세계화에 따른 경제, 사회, 문화적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거나 저항할 수 있는 주요한 도구로 인식됨(대안경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초 제도로 이해)

○ 지역통화가 주목 받는 이유(2)

● 사회문화적 요인

1.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문화 미디어
 - 시장에서의 익명적 관계나 사자와 팔자 사이에서의 상하 관계를, 일정한 커뮤니티(공동체)에서의 얼굴이 보이는, 협동적이고 대등한 관계로 바꿈
2. 시민운동의 지원 도구
 - 시민단체의 활동이나 재정기반의 안정화에 이바지



○ 지역통화운동의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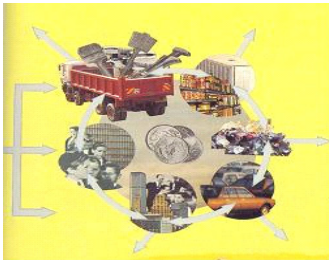
- 지역경제 활성화
- 신용창조 및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통제력 강화
- 교환을 통한 인간적 교류 강화
- 더욱 강력한 공동체 의식 고양
- 사회적 관계의 개선과 사회적 소외의 억제
- 사장될지 모를 기술과 재능의 충분한 활용
- 유급노동에서는 불가능한 자신감과 자긍심 독려
- 즐거운 삶의 영위와 삶의 질 향상
- 실업 및 환경 문제 해소에 이바지
- 지속 가능한 생활양식 창출 및 순환형 경제 시스템 구축



지역통화 시스템의 설계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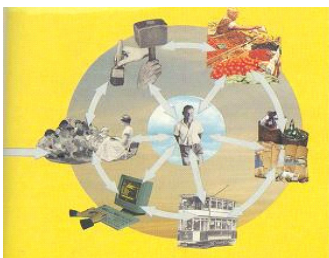
	국가통화	이타카 아워즈	타임 달러즈	레츠 시스템	WIR	ROCS
단위	달러, 마르크, 프랑 등(달러를 통해 중개)	1아워=10달러(지폐)	서비스 시간	녹색 달러=달러	달러(스위스 프랑)	아워
발행방법	중앙은행 및 대리은행	센터	상호부조 신용	상호부조 신용	센터+상호부조 신용	상호부조 신용
세부사항	부채기반적 법정화폐, 이자부담; 따라서 경쟁 촉진	공급이 관리되어야만 하는 후원받는 법정통화	보통 고정환율: 당신의 시간=나의 시간	가장 유행하고 있는 지방 시스템	회계단위로 국가통화(스위스 프랑) 이용	- 협정된 환율 - 플러스와 마이너스 수지에 모두 일수 초과료 - 부과
주요편익	법률적 변제 제공	이용용이: 지폐	가장 단순한 시스템	이용용이: 국가 및 녹색통화를 위한 단일가격	가장 오래된 최대의 지방시스템-80,000회원:20억달러/년	기타 모든 지방 시스템에서 가장 건전한 모양 종합

기존 화폐와 지역화폐 시스템 간의 차이



기존 화폐 시스템

기존의 경제 시스템에서는 화폐가 외부의 원천으로부터 유입되고, 재화와 서비스가 구매됨에 따라 개인들 사이를 왕래한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화폐는 다시 외부로 빠져 나간다.



지역화폐 시스템

화폐가 없는 거래 시스템에서는 재화와 서비스가 물물교환처럼 교환되고, 적은 돈만이 필요하다. 자원이 공동체 안에서 유지되므로 지역 주민들은 레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심지어 돈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지역경제에 참가할 수 있다.

2. 지역통화운동의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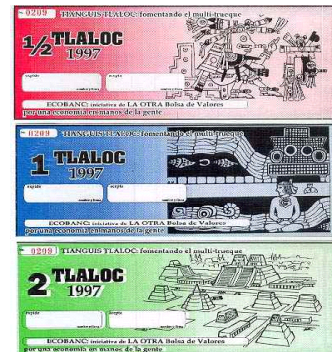
○ 지역통화의 종류

1. 가치기준에 따른 지역통화 분류

가. 노동시간과 링크하는 통화: 타임달러(1시간 = 1타임달러)

나. 국가통화에 링크하는 통화: LETS, RGT(글로벌 교환링), 토론토 달러, WIR

다. 노동시간과 국가통화 양자에 링크된 통화: 이타카 아워(1아워는 1시간 노동, 또는 동 지역의 시간당 평균임금 10달러에 상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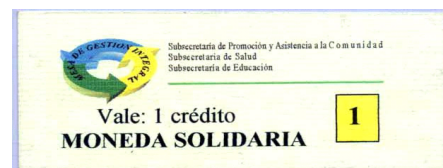
2. 통화발행방식에 따른 지역통화 종류

가. 지폐방식 - 발행위원회가 독자적인 디자인과 메시지를 인쇄한 지폐를 발행해 유통(이타카아워, 토론토달러, 일본의 크린, 오오미 등)

나. 계좌방식(기장방식) - 지폐를 발행하지 않고 참가자가 잔고제로로부터 출발하는 계좌를 가지고 거래를 다각적으로 결제해가는 방식(레츠, 독일의 교환링, 프랑스의 SEL(지역교환제도), 일본의 피넛츠, Q, 한국의 한발레츠 등)

커뮤니티에서 개인들 사이의 신용에 기초해 거래하므로 '상호 신용방식'이라고도 부르는데, 참가자의 거래나 계좌잔고가 공개된다는 특징을 가짐

수표방식인 경우 회원들이 입회 때 수표장을 받듯이 계좌방식에서는 새로 통장을 받음



다. 어음방식(채무증서방식) -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개인이 스스로 새로운 어음(채무증서)을 끊거나 제3자로부터 받은 채무증서에 이서를 해 거래하는 방식

어음 발행한 뒤 이서를 거듭하면서 유통되다가 마지막에 발행자의 수중에 되돌아 왔을 때 최종 정산됨(최근에 일본의 일부 지역에서 사용 중)



지역통화 발행방식의 차이에 따른 장점과 단점

	장점	단점
지폐 방식	간편하고 익명적 현행 통화와 닮은 사용감각 상징적인 호소 기능 있음 불특정다수에게 확산되기 쉬움	발행권한의 집중과 위조 가능성 있음 발행단체에 의한 신용창조의 가능성 발행규칙의 정비, 발행량 관리 필요 유통경로, 거래집계가 어려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계좌 방식	각 개인이 교환 때 통화 발행 신용창조 없고, 적자보유 가능 회원제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구축이 어려움 유통경로 특정이 가능하여 부정방지됨 적자한도 설정 가능 전자머니에 의한 단점 극복 가능	기장하는 번거로움이 있음 운영이나 관리가 필요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있음
어음 방식	각 개인이 교환 때 통화 발행 신용창조 없고, 적자 보유 가능 면 대 있는 상대방과도 거래 가능 통상 거래 때에는 간편 상징적 호소 기능 있음 불특정다수에게 확산되기 쉬움	발행하는 데 번거로움 있음 유통경로, 거래집계가 어려움 유통범위 한정이 어려움 위조의 가능성 있고, 관리나 감시가 어려움 적자한도 설정 불가능 도덕적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 큼

○ 지역통화운동의 추진 준비 및 운영순서

● 누가,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1)?

- 조직과 운영을 맡을 핵심인력 몇 명만 있으면 착수 가능
(시민단체, 생협, 마을자치회, 상공회의소, 청년회의소 등의 기성
조직이 추진해도 괜찮지만 구성원은 여러 분야 및 연령층이 모이는
것이 바람직함)
- 지역통화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한 강연회나 연구 및 토론회, 비
디오 시청, 게임 체험 등 다양한 학습 추진
- 지역화폐운동이 지역경제의 활성화, 커뮤니티의 창조, 또는 양자
에 역점을 둘 것인지, 그리고 통화 발행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
정(지폐, 계좌 또는 어음)
- 지역통화의 명칭 및 단위, 운영단체 이름, 지폐나 통장의 디자인
등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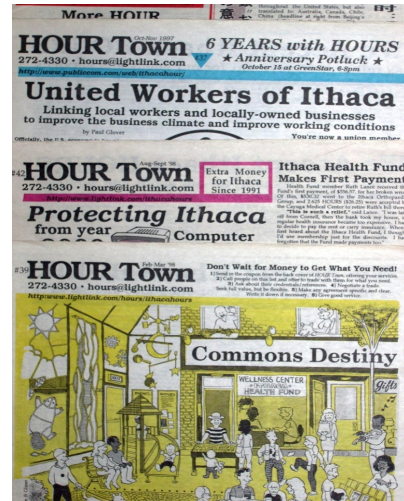
● 누가, 어떻게 하면 시작할 수 있을까(2)?

- 지역통화운동 단체의 규칙 또는 정관 작성 추진

○ 단체 명칭과 목적, 가치척도, 회원 자격, 회비(입회비 및 수수료), 참가 및 탈퇴 규정, 유통범위와 유통기간, 발행규칙(지폐방식의 경우), 적자한도의 규정(계좌방식의 경우), 운영단체 등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 필요

- 지폐나 통장, 그리고 인터넷 시스템이 구축되면 회원 모집 추진

- 운영자는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정기적으로 바자를 열거나 풋트록 파티, 신입회원 모임 개최, 그리고 음악이나 춤 등의 퍼포먼스, 영화나 연극 감상회 등 다양한 이벤트 마련, 회보 및 소식지 발간 등 추진



● 지역통화 운영의 일반적 순서

1. 운영조직의 설립 - 시스템의 운영조직 설립

2. 거래 리스트의 제출

- 참가자는 미리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 및 서비스'와 '제공받고 싶은 재화 및 서비스'의 품목과 가격을 용지에 기입하여 운영조직에 제출

3. 회보의 배포

- 운영조직은 제출된 거래 리스트를 정리하여 회보로 제작하고 회원에게 배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거래 상대의 결정

- 회원은 회보나 홈페이지 등의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찾음

5. 거래와 지불(정산)

- 가격이나 수송비용, 기타 조건은 당사자끼리 상의하여 자유롭게 결정

- 지역통화와 국가통화를 병용할 때는 각각의 비율도 마찬가지로 당사자가 상의해 결정(공동체 내에서 가이드 라인 설정하기도 함)

6. 거래 결과의 보고

- 거래내용(상대방, 재화나 서비스의 내용, 가격, 잔고 등)을 운영조직에 보고

- 운영조직은 집계와 관리, 정보 공개



3. 국내 지역화폐운동의 현황과 문제점

○ 지역통화운동은 1996년부터 녹색평론을 통해 소개됨

- 1998년 3월 신과학운동 조직인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들의 모임'이 국내 최초로 '미래화폐(FM)'란 이름으로 지역화폐운동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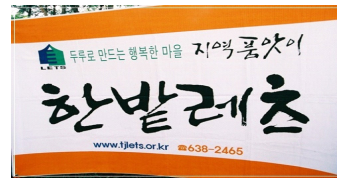
- 2년 정도가 지나면서 '한발레츠(1999년 10월)'를 비롯해 30여 개의 지역화폐운동 단체가 창립했고, 그 후 무수히 많은 단체들이 창립과 해체를 반복하면서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 현재는 초기에 창립한 단체 중 한발레츠, 과천품앗이 등과, 2002년 이후에 창립한 구미 사랑고리은행(타임달러 형태) 등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고, 비교적 역사가 일천한 성남문화재단, 의정부레츠 등이 최근에 열심히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국내에 도입된지 10년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외국의 지역화폐운동과 비교해 운동 성과가 아직 미흡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됨

● 지역화폐운동이 제대로 되지 않은 이유

- 지역화폐 운동을 전업으로 하지 않고 시민단체나 환경단체에서 간사 한명을 형식적으로 배치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시작했다가 업무 과중으로 조직이 붕괴
- IMF 사태가 터진 이후에 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고용 창출과 동시에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공무원들이 직접 지역화폐 운동을 시작**했다가 시스템 붕괴
 -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화폐 운동을 시작해서 쉽게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하는 장점이 있기는 했지만, 제도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의욕적으로 이 운동을 추진했던 관계 공무원이 새로운 부서로 발령받아 보직이 변경될 경우, 하루아침에 시스템이 붕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발생했음



- 지역화폐 운동단체가 재정사정이 열악해 실무 인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웠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외국의 경우 우리와는 달리 자원봉사자로 실무인력을 지속적으로 수혈하는 것이 가능하고, 정부나 재단의 재정지원이 적지 않은데 우리 실정은 그럴지 못했음

- 또한 **지역화폐 운영 매뉴얼은 물론 계정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아 운영상의 애로가 적지 않았음

- 지역화폐 운동단체의 네트워크와 전국적인 조직이 전무해 정보교환도 원활하지 못했던 데다 체계적인 교육시스템도 아주 미흡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음



4. 향후 과제 및 전망

○ 지역화폐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 향후 과제

a. 영국의 레츠링크, 일본의 에코머니 네트워크와 비슷한 ‘공동체화폐 연구자 네트워크’와 ‘지역화폐연대 사무국’으로 구성된 전국 조직 발족, 운영

- 전국에 산재해 있는 경제, 환경, 사회 복지, 여성, 계획·정책학 등의 학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직을 구성하여 학제적인 공동연구와 성과발표회를 주기적으로 실시

- 전국 지역화폐연대의 책임자와 지역화폐 운동단체의 대표자 등을 중심으로 짜여진 사무국과 지역분과회 조직 구성 추진



<http://blog.naver.com/meartoo>

- 공동체화폐 운동에 필요한 모든 노하우나 지원 서비스 제공, 지역단체의 실험에서 얻은 모든 정보 제공

- 사무국에서 지역화폐 도입을 위한 매뉴얼 작성

- 컴퓨터를 이용해 과학적으로 계정관리를 할 수 있는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단체에 제공



b. 에코라이프 전시관 설치.운영

- 일본 등 선진국의 경험을 토대로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에코라이프 전시관을 설치.운영
- 에코라이프 전시관 구성 개요
 - **기본구역**: 지역화폐 등의 기본개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구역
 - **사례구역**: 지역화폐의 국내외 사례를 소개하는 구역 → 여기서는 지역화폐를 실제 도입.운영하는 지역 공동체와 국제기관과의 교류 공간도 병행해 제공
 - **가상체험 구역**: 아바타(가상공간의 캐릭터)가 등장해 방문자의 기호에 맞는 정보교환방에 들어가 다른 아바타와 대화를 즐기면서 다양한 정보 교환(예, 제로배출, 두레 등 다양한 내용 포함) → 인터넷의 3차원 공간에서 지역화폐를 매개로 직접 ‘품앗이 놀이’를 체험하는 공간을 마련해 자연스러운 학습 기회 제공

○ **평가구역**: 지역화폐를 가상 체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에코라이프 수준을 확인하는 특별구역 배치

○ **운영.관리자료 코너**: 지역화폐 운영 매뉴얼 및 계정관리 프로그램을 범용으로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에코라이프 전시관’의 운영 성과를 보아가며 다양한 인터넷상의 포털사이트와 제휴해 포털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전자상거래 수익의 일부가 지역화폐운동에 기부되는 ‘에코포인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별도로 마련 추진

○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기업의 사회참여를 촉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동체 복원도 지속적으로 병행.추진

c. 지역화폐 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 지원 추진

- 중앙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은 매뉴얼 작성과 계정 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재정을 지원하고, 레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연구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

○ 호주의 경우 상무부의 주관 아래 이런 사업이 실시되었음

○ 이를 토대로 호주 서부에 위치한 낙후된 소도시의 총매출액을 레츠 거래를 통해 1년에 10%씩 증가시킨다는 목표 아래 사업체의 가입 적극 유도 추진

○ 일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연구업적이 적지 않게 축적되어 있지만 국내에는 전무한 형편임

- 지역화폐운동 활동가의 양성과 교육사업을 지원함과 동시에 레츠와 같은 지역화폐 운동에 자문해 줄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일 등 추진

- 전국지역화폐연대 사무국과 지역단체에 컴퓨터, 사무실 집기, 홈페이지 개설·유지, 국제연대 활동 등에 행.재정 지원도 도모

○ 영국, 일본 등의 일부 지자체에서는 전담인력 배치는 물론 행재정 지원도 추진 중임

○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추진하는 단위사업과 연계된 협력 사업을 지역화폐운동 단체가 추진시 행재정 지원 적극 전개



“만약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면 호주는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큰 나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번창하는 대안적 경제를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다.”

<레츠 활동가 패트리샤 녹스>



감사합니다

지역통화운동의 의의와 실제

- 한발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훈

(대전 한발레츠 대외협력실장)

1. 화폐 발행권과 민주주의

“만약 미국인이 끝까지 민간은행으로 하여금 국가의 화폐발행을 통제하도록 둔다면 이들은 행은 먼저 통화 팽창을 이용하고 이어서 통화 긴축 정책을 써서 국민의 재산을 박탈할 것이다. 이런 행위는 어느날 아침 그들의 손자들이 자기의 터전과 선조가 개척한 땅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미국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

“은행이 부분 준비금 제도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수표 화폐는 가짜 돈을 몰래 찍어 내는 것과 같다. 이 '가짜 돈'을 처음 받은 사람은 먼저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실컷 음식을 시켜 먹는다. 최초로 가짜 돈을 사용한 사람에게는 시장 물가가 원래의 수준이므로 그의 손에 있는 가짜 돈은 종전과 똑같은 구매력을 지닌다. 레스토랑 주인은 가짜 돈을 받아 웃을 한 벌 사 입음으로써 두 번째 수익자가 된다. 이때 가짜 돈의 유통량은 아직 시장에서 나타날 정도가 아니므로 물가는 아직 변동이 없다. 그러나 가짜 돈이 유통되면서 시장에서는 그 영향이 나타나고 물가는 점점 상승하게 된다. 가장 재수가 없는 사람은 가짜 돈을 손에 넣기 전에 물가가 전면적으로 상승해 버린 경우다. 그들의 손에 있던 돈은 물가가 상승하면서 점차 구매력을 잃어버린다. 즉 가짜 돈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 덕을 보며, 그 돈을 늦게 손에 넣는 사람은 손해라는 이야기다. 현대의 은행 제도에서는 부동산이 은행과 가까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덕을 본다. 반면에 노인연금에 의지해 살아가거나 착실히 저축을 해온 사람들은 가장 큰 피해자들이다. 따라서 통화 팽창의 과정은 곧 사회의 부가 이전되는 과정이다. 이 사이에서 은행 시스템과 멀리 있는 가정은 재산의 손실을 본다.” (화폐전쟁, 송홍병 중에서)

뉴욕대 누리엘 루비니 교수는 미국발 금융위기를 맞아 미연방준비제도(FRB)가 초국적 금융자본에 천문학적인 달러를 마구 찍어서 주는 것을 보며 말했다.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는 시스템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화된 손실은 우리 몫이 된다. 주머니에 돈이 사라지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웃, 친지들에게 돈을 빌리려하나 힘들긴 마찬가지다. 방법은 둘 중의 하나이다. 삶을 포기하거나, 독하게 싸워 이겨서 살아남기. 물론 우리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경쟁해서 살아남기 위한 법을 배울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이 선택하는 두 번째 방법은 더 격한 대립, 더 강한 경쟁을 하지 않고는 살아남지 못하는 세계만을 상상하게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나누고 협동하면 사람들은 돈에 의존하기보다 이웃과 자연에 의존하게 된다. 인간의 노동이 상품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며 자신을 실현하기 위한 창조적 행위가 된다. 화폐는 최소한의 교환을 위한 것일 뿐,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본주의 화폐경제는 그 속성상 공동체와 적대적이다. 사람들을 모든 관계로부터 단절시켜야 한다. 농토를 빼앗아 도시로 내몰고 생산수단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돈을 미끼로 내부경쟁시스템을 유발하여 서로 적대시하게 만든다. 생산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분업화는 이 과정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여 고립을 가속화하고 인간은 그 무엇으로부터도 유리된 채 홀로 버려진다. 그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화폐를 취득하는 일 뿐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최초로 완성되는 순간,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악순환의 고리는 무한반복을 통해 한편에서는 인간을 고립시키고 그 모든 관계와 만인을 향한 투쟁, 자연을 향한 투쟁을 하지만 주기적으로 공황을 맞이하며 스러져간다.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무기력해지고 무능력해진다. 이웃과의 관계를 오로지 돈에 의존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우리는 자나깨나 돈을 벌 궁리만을 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이웃과 자연은 무시된다. 자본주의를 사는 현대인의 비극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나눔과 협동 없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 지금까지 그것이 가능했던 유일한 사람은 로빈슨 크루소일 뿐이다. 따라서 지금도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곳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나눔과 협동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에서 여전히 자본주의 화폐경제 사회도 엄연한 공동체이다. 다만 이 공동체는 우애와 연대의 인간관계의 기반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라 화폐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란 것이다. 화폐 없이는 존립할 수 없는 공동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어야 한다. 화폐를 누가 어떻게 발행하는가?

"내가 한 국가의 화폐 발행을 관장할 수 있다면 누가 법을 정하든 상관없다" 메이어 암셀로스차일드의 말이다. 그는 교묘한 수법으로 어리석으며 허영심 많은 왕으로부터 화폐발행권을 획득한 후 세계인의 운명을 손에 쥘 수 있었다. 화폐 발행권은 그 무엇보다 가장 강력한 권력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세계의 기축통화인 달러를 발행하는 곳은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이다. 그곳이 민영은행들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철저한 사익추구집단이란 것을 아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가장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고 발행되어야 할 화폐는 가장 이기적이고 가장 탐욕스러운 사람들을 위해 무책임하게 발행되고 있다. 그들은 인류의 재산, 지구의 자원을 조금씩, 때로는 훔쳐서 사유화한다. 한국사회의 화폐발행권이 국가에 있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화폐의 이동은 이미 국경을 초월한지 오래이다. 국경을 초월한 이후 한국 화폐 "원"의 가치는 미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발행하는 달러에 종속된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가 특정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발행되는 화폐이고 이 화폐가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그로부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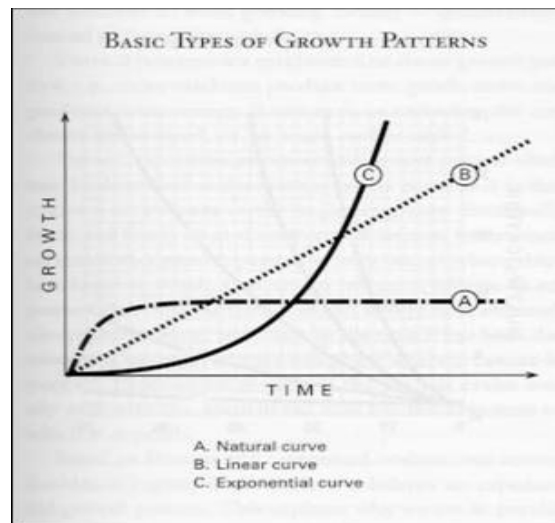
새로운 도전의 핵심은 우리가 스스로 화폐발행권을 갖는 것이다.

II. 이자와 인플레이션에 자유로운 돈

“연속되는 인플레이션 과정에서 정부는 비밀리에 국민의 재산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이 방법을 쓰면 마음대로 국민의 재산을 뺏아올 수 있다. 다수가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소수는 벼락부자가 된다.” (경제학자 케인즈)

마그리트 케네디 박사는 독일 지역통화 (REGIO)를 이끌고 있다. 그녀가 2004년 7월 유럽 보완통화회의(Conference Complementary currencies in Europ)에서 발표한 내용은 지역통화운동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마그리트 케네디는 “이자와 인플레이션에 자유로운 돈(Interest and Inflation free money)”이라는 책을 쓰기도 했는데 현재의 통화제도의 문제를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다음의 그래프로 설명하고 있다.



자연계의 성장은 기본적으로 A 형으로 유아기나 사춘기에는 급격하게 성장하지만 성인이 되면 양적인 성장은 끝나고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된다. 하지만 자연계에는 C형과 같이 처음은 완만하지만, 어떤 시점부터 가속도 성장을 하는 것이 있다. 이 곡선은 암세포 곡선이다. 제동 장치가 듣지 않는 이 성장은 숙주를 무너뜨릴 때 까지 계속된다. 이 암세포 곡선이 현재의 자본주의 화폐경제의 성장곡선이기도 하다. 마그리트 케네디는 만일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예수가 태어났을 때 미 달러로 1달러를 연리 5% 복리로 예금하고 있었을 경우 1990년 시점에서 지구 체적의 1340 억 배에 달하는 예금 잔고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경제 제도는 조만간 파탄을 피할 수 없게 된다고 말한다.

두 번째는 그녀가 지적하고 있는 현 통화제도의 문제는 자기가 빚을 내지 않았어도 이자 부담을 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1983년 서독 아헨 시의 쓰레기 수집 경비 12%가 이자의 지불에 쓰이고 1981년 서독 북부 상수도 38%, 그리고 1979년 서독 평균 주택 77% 이자를 지급하기 위해 쓰인다는 것이다. 이처럼 이자라는 것은 사회전체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이자에 의해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부자에게 이전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리면서 이자를 내야하고 세 들어 살면서 임대료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소득이 부자에게 이전되어 간다는 것이다.

마그리트 케네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통화운동을 하고 있는데 독일 각 지에 서 도입되고 있는 독일 지역통화 REGIO 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으로부터 지역 경제 보호
- 사용하지 않는 자원 활용
- 지역에 도움이 되는 안정되고 순환하는 통화의 공급
- 설립 과정이 투명
- 지역 주민에 의해서 민주적으로 관리
- 지역 기업과 자본의 이전에 따른 고용 감소의 방지

케네디 여사는 한발레츠 5주년 기념행사에 보낸 축전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들이 지역화폐의 취지를 이해하고, 자신의 의지로 거래의 방법을 창조해 나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역통화는 하나의 도구로서, 사람들의 복지, 문화적 주체성,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경제적 교환을 통해서 이웃과 관계를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이 땅에는 정당하고 민주적인 방식의 화폐 체계를 통해 스스로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또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격월간지 녹색평론의 소개로 잘 알려진 지역통화 운동가 베르나르 비에테르는 이렇게 축하 인사를 해주었다.

“저는, 여러분이 지역 문제들을 대안화폐와 더불어 다루려는 5천여 공동체를 포함하는 세계 운동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안화폐 운동은, 여러분 사이에 다양한 종류의 서로 다른 관계를 창출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대안화폐는 가치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 차제만으로 혁명적이며, 보다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뉴욕 이타카 시의 이타가 아워 창시자 폴 글로버는 말한다.

“미합중국달러는 세계의 가장 큰 빚쟁이가 아무런 실질적 토대도 없이 발행하는 영터리 지폐이지만 <이타카 아워즈>는 우리가 약속을 나눌 수 있는 실제 현실의 사람들의 시간과 기술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대안을 찾는 많은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 지역통화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갖는다.

첫째, 우리가 만드는 돈은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이자는 불평등을 양산한다. 나눔과 협동의 관계를 대립과 경쟁의 관계로 변질시킨다.

둘째, 우리가 만드는 돈은 지역사회에서 통용되는 돈이다. 지역사회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맞대는 교류의 장이며 삶을 공유하는 생활의 장이다. 지역화폐의 기반이 되는 자율과 책임의 신뢰관계가 가능해지는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다. 지역화폐에서 특히 ‘지역’을 강조하는 이유는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돈은 많은 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지역의 노동과 자연자원을 이용한 재화를 끊임없이 외부로 빼앗기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가 사용되어 지구환경은 악화된다. 생산, 소비, 유통, 재활용의 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자립적인 경제구조가 구축되어야 하는데 지역화폐가 적절한 매개체가 될 것이다.

셋째, 우리가 만드는 돈은 필요할 때 언제든지 스스로 발행할 수 있다. 벌어야지만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 필요하면 발행해서 쓸 수 있는 돈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근거도 없이 마구잡이로 돈을 발행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만드는 돈은 참여자의 자율과 책임, 신뢰에 기반한 인간의 노동, 자연에 근거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인간관계, 자연의 순환원리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해서 그것을 다지고 확장해나가는 것이다.

III. 지역품앗이<Local Exchange(Employment) & Trading System>운영 시스템의 개요¹⁾

■ 지역품앗이란

- ▶ 지역 내에서 통용되는 지역화폐를 통하여 회원 사이에 노동과 물품을 거래할 수 있는 교환제도
- ▶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노동과 물품을 이를 필요로 하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자기 자신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노동과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다자간 품앗이’ 제도이다.
-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원 간의 교환제도이며, 지역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기반으로 한다.

◎ 지역품앗이의 특징

- 비영리로 운영된다.
- 지역화폐를 사용한다.
- 국가에서 발행하는 화폐 없이도 거래가 가능하다.
- 얼굴을 아는 회원 간의 직접적인 거래제도이다.
- 지역화폐는 ‘얼굴을 가진’ 통화제도이다.

1) 한국지역품앗이 네트워크 준비위원회화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지역품앗이 운동 설명회 자료(1999년 11월)에서 발췌

◎ 지역품앗이의 유익성

- 다른 사람에게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를 통하여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는다.
- 공식적인 직업이 없어도 개인의 능력과 자원을 활용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용의 기회가 창출된다.
- 지역사회 구성원간의 직접적인 교환관계를 통하여 상호간의 이해증진과 연대감을 강화한다.
- 제한된 지리적 영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순환, 교환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
- 지역중심의 경제활동은 비용절감적이며 환경친화적 경제에 기여한다.

◎ 지역품앗이의 운영원칙

- 거래 시 회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 거래의 모든 책임은 기본적으로 회원에게 있다.
- 거래 내역은 전체회원에게 공개된다.
- 거래 내역은 각 회원의 계정에 (+) 또는 (-)로 기록된다.
- (+) 또는 (-) 계정에 이자가 붙지 않는다.

◎ 운영 요건

- 최소한의 회원
- 지역화폐
- 사무실, 운영요원, 최소한의 장비(전화, 컴퓨터 등)
- 지역품앗이 관리·운영 소프트웨어
- 정보제공을 위한 회보

◎ 운영 방법

- 회원 등록
 - ▶ 운영원칙에 동의하는 회원은 가입신청서를 작성한다.
 - ▶ 신규회원은 규정에 따라 등록비를 낼 수 있다.
- 등록소
 - ▶ 회원들의 계좌관리 등 지역품앗이 운영을 위하여 등록소를 설치한다.
 - ▶ 등록소는 회원 간의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회원들에게 통

보한다.

- ▶ 등록소의 운영비용은 회원의 등록비와 거래 시 수수료로 충당한다.

● 회원 계좌

- ▶ 회원은 개인별 계좌를 갖는다.
- ▶ 회원 간의 거래 내역은 지역화폐로 기록된다.
- ▶ 모든 계좌는 '0'에서 출발한다.
- ▶ 회원 계좌의 잔액은 거래 실적에 따라 (+) (-)로 정리된다.
- ▶ 회원은 물품과 노동은 다른 회원에게 제공하기 전에 먼저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 계좌로 기록된다.

● 지역화폐

- ▶ 지역화폐의 명칭은 지역에 따라 자유롭게 정한다.
- ▶ 지역화폐의 가치는 원칙적으로 시중화폐의 가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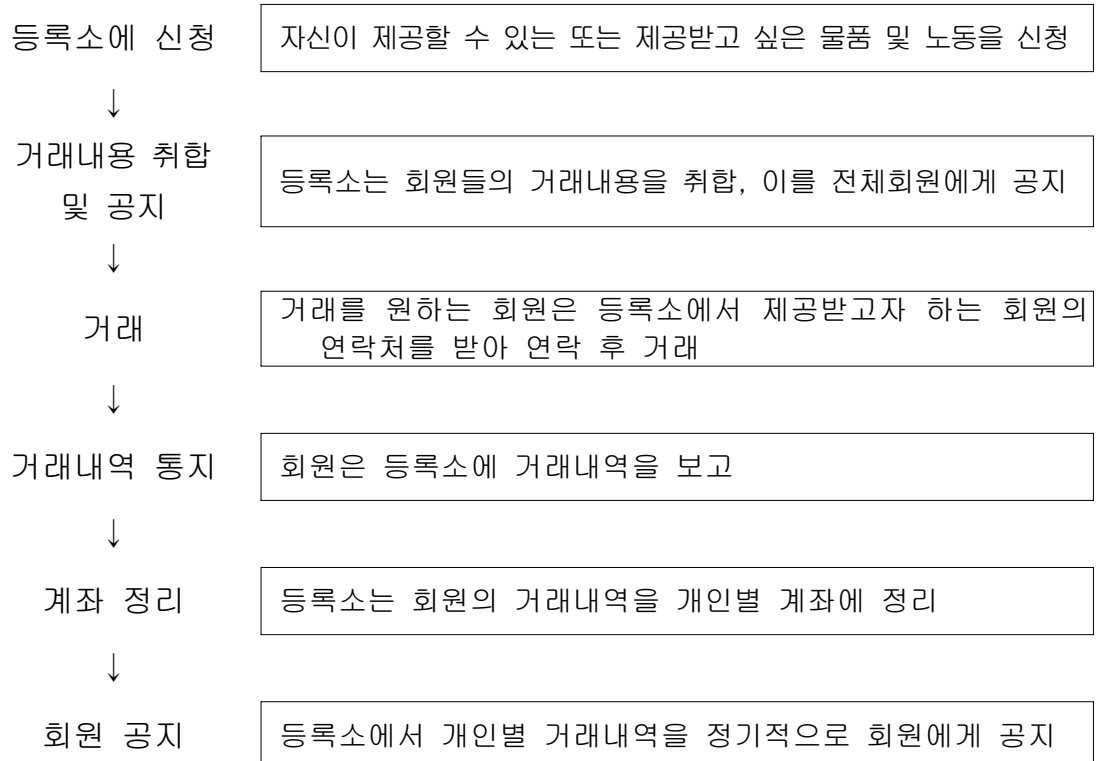
● 물품과 서비스의 가격

- ▶ 거래되는 물품과 노동의 가격은 회원 상호간의 합의하에 결정한다.
- ▶ 거래액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공제할 수 있다.
- ▶ 회원들은 거래액의 일부를 시중화폐로 지불할 수 있다.

● 거래 절차

- ▶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물품 및 노동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공받고 싶은 물품 및 노동을 등록소에 신청한다.
- ▶ 등록소는 회원들이 원하는 거래내용을 취합하여, 이를 전체 회원에게 알린다.
- ▶ 다른 회원으로부터 물품 및 노동을 제공받고자 하는 회원은 이를 제공할 수 있는 회원에게 연락한다.
- ▶ 회원들은 거래내역을 등록소에 보고한다.
- ▶ 등록소는 회원들의 거래내역을 회원의 개인별 계좌에 정리한다.
- ▶ 등록소는 회원들의 개인별 거래내역 및 대차대조표를 정기적으로 전체 회원들에게 알린다.

<지역품앗이 거래 절차>



● 회보 혹은 홈페이지

- ▶ 등록소는 정기적으로 회보를 발행하여 회원들의 거래희망 목록과 개인별 거래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거래 가능한 품목

- ▶ 원칙적으로 모든 물품과 노동의 교환이 가능하다.

IV. 한발레츠 소개

I. 사업의 개요와 목적

1. 사업의 개요

- 1) 단체명 : 지역품앗이 한발레츠
- 2) 지역화폐 명칭 : 두루
- 3) 지역화폐 도입 시기 : 99년 10월, 창립일 2000년 2월 1일

4) 회원 수 및 회원 업소 수 : 530여명, 회원업소:80여개

5) 회원의 연령대(많은 순으로 나열) : 30대-40대-20대-50대-60대-10대

6) 개요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삶을 위해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공동체라고 여긴다. 서로가 제 공할 것과 요청할 것을 공동체에 공개하여 필요한 곳에 적절한 노동과 시간, 재화가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한발레츠는 이를 위해 지역 화폐이자 공동체 화폐²⁾인 ‘두루’를 통하여 서로의 삶을 나눈다. 식·의·주 기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거래는 물론 의료, 재활용, 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과 재화를 교환하고 때로는 감사와 축하의 마음을 전달할 매개체로 ‘두루’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에는 두레, 품앗이, 울력, 계가 있어 오래 전부터 서로 돕고 보살피고 나누고 협동하는 풍속을 가지고 있었다. 한발레츠는 이를 오늘날의 현실에 맞게 재구성한 다자간(多者間) 품앗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현대화된 시스템은 지구촌 각지에서 5,000여 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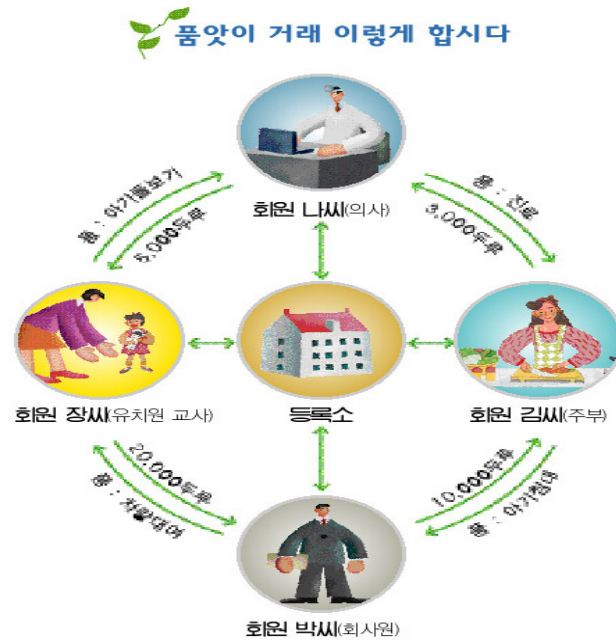
지역품앗이 한발레츠는 1999년 10월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를 모태로 시작한 이래 현재 별도의 비영리 민간단체로 5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매년 10,000여건의 거래를 하고 있다. 또한 한발레츠를 통해 형성된 관계를 통하여 대전 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민들레의료생활협), 12년제 대안학교로서 대전 꽃피는 학교가 만들어졌으며, 현재 대전지역의 호숫가 마을 품앗이 등 4개의 마을별 품앗이의 산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꾸준히 성장해온 지역통화 운동단체로 전국적으로 각 마을과 단체에 지역통화운동을 소개하고 있으며 2008년 지역통화운동의 확산을 위해 개발한 <품앗이 놀이>는 지역통화를 하고자하는 곳곳에서 시연되고 있다. 2009년 11월에 일본 동경에서 열린 제 2회 아시아 연대경제 포럼에서 <지역통화와 의료생활>이란 주제 발표로 대안경제를 모색하는 이들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다.

7) 거래가 이루어지는 과정

- ① 회원가입 : 방문, 전화, 인터넷 가입, 월 5,000원, 3,000원+ 2,000두루, 혹은 5,000두루의 회비 납부
- ② 거래신청 : 한발레츠 등록소에 제공 혹은 요청할 물품이나 서비스를 등록한다.
- ③ 거래하기 : 등록된 서비스나 물품을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알리면, 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이 서로 연락하여 거래가 이루어진다. 이때 최소 30% 이상은 두루로 거래하여야 한다. 현금 대 두루의 가치는 1:1 이다. (1,000원=1,000두루)
- ④ 거래 성사 알림 : 거래를 마친 회원 중 제공한 쪽(수입이 생긴 회원)이 거래내역(거래일, 거래회원, 거래품목, 금액 등)을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해 등록소에 거래신고를 한다.
- ⑤ 계좌정리와 공지 : 등록소는 회원의 거래내역을 정리 기록한다. 매년 연말에 각 회원의 계정을 정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회원이 열람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계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다. (웹 계정관리프로그램 완성)

2) 의미나 번역에 따라 지역화폐, 지역통화, 공동체화폐, 녹색화폐 등 다양하게 불리어나 편의상 공동체 화폐로 통일한다.

<표 1. 한발레츠 거래도>



<표 2. 지역화폐 ‘두루’의 의의>

현 금		구 분	두 루	
결과	원인		원인	결과
소극적 태도	중앙은행이 통제	화폐 보유	스스로 발행	적극적 태도
↓	↓	↓	↓	↓
배타적 관계	거래물품	관심사항	거래자	호혜적 거래
↓	↓	↓	↓	↓
zero-sum	불신, 경쟁관계	관계	신뢰, 협력관계	win-win
↓	↓	↓	↓	↓
빈부격차 증가	외부유출	재화	지역내 순환	빈부격차 감소
↓	↓	↓	↓	↓
생활고 증가	증가	생활비용	감소	생활고 감소
↓	↓	↓	↓	↓
여가의 감소	부족	현금	증가	여가의 증가
↓	↓	↓	↓	↓
정서적 고립감	공동체 해체	거래결과	공동체 강화	정서적 유대감
↓	↓	↓	↓	↓
불가능	자원착취	지속가능성	순환	가능

2. 사업의 목적

1) 현실인식

현행화폐 제도가 인간과 생명, 환경에 대한 고려 없이 맹목적인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운동의 일환으로 작동하여 그 폐해가 심각하다고 여겨 이에 대항하는 대안경제 운

동, 그리고 지역생물주의에 입각하여 살림의 경제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공동체 운동을 펼치고자 한다.

2) 목적

- ① 도시에서 공동체의 생활양식을 창출한다.
- ② 생산·소비·유통·재활용의 과정을 지역 내에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한다.
- ③ 실업자, 주부, 노인 등의 일자리 창출과 유희노동력을 개발·활용한다.
- ④ 이윤 중심의 세계화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운동을 공동체 화폐로 연결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간다.
- ⑤ 앞의 네 가지를 위한 가장 유력한 도구의 하나인 레츠(LETS)운동의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3) 3대 슬로건

- ① 나와 이웃이 어울려 행복한 마을
- ② 자연과 조화로운 건강한 마을
- ③ 스스로 서고 스스로 다스리는 공동체 마을

3. 사업 추진 당시의 주된 배경(조직 내의 배경 또는 지역사회의 배경)³⁾

1) 대전의 지역특성, 그리고 IMF

대전은 토착민보다 외지인이 많이 이주해와 사는 도시로 다른 대도시에 비해 지역주민들이 느끼는 정주성이 비교적 낮은 곳이다. 또한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쉽게 수용되기 어려운 사회적 분위기를 지닌 다소 보수적인 도시이다. 이런 도시에서 중앙은행이 아닌 지역, 특히 회원들로 구성된 공동체 내에서 주민들이 직접 화폐를 발행해 상품과 서비스를 교환하도록 만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IMF 이후 국민들의 삶과 일터를 지켜 주리라고 믿던 정부는 물론 기업도 모두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스스로 가능한 한 자립적인 삶의 토대를 마련하고,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 사이의 공생을 모색하는 소박한 생활방식을 확립하려는 운동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지역화폐 운동이었지만, 이 시스템을 우리들이 사는 지역에 도입하는 일은 대전의 특수성 때문에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2) 한발레츠의 출발, 대전의제21추진협의회

그 후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에서 발행하는 소식지, 《꿈과 희망의 푸른 대전 21》에서 ’99년 6월부터 몇 차례 지역통화운동과 관련된 글을 번역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리고 ’99년 10월 발행한 소식지에 ‘한발레츠를 시작합니다’라는 제목의 광고를 게재해 이 운동에 참여하려는 회원들을 모집하는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기에서는 ‘한발레츠’에 시민들이 가

3) “한발레츠-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녹색평론 60호, 박용남)에서 일부 인용

입해 계정을 등록하고 사용하는 방법, 등록자 동의서, 제공하고 싶은 것과 요청하고 싶은 것을 기록한 사용자등록 가이드, 그리고 실제 거래내역과 연락처 등이 담긴 한발레츠 게시판의 예를 소개하였다. 또한 가입회원들이, 직접 거래하는 모든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조금 서투르기는 하지만 간단히 만화로 그려 홍보하는 노력도 시도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개인적으로(박용남-편집자 주) 평소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지역의 신문·방송 등 언론사의 기자와 PD 등에게도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한발레츠’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었다. 이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대체로 “거참 신기하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한냐”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지역 품앗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대로 그들은 여러 차례 언론매체에 이 운동을 소개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진전이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주었다.

3) ‘지역’의 원칙을 세우다.

이에 힘입어 우리들이 회원가입을 받기 시작한 11월 초부터는 각계각층에서 문의전화가 쇄도하고, 심지어는 대전과 인접한 청주, 옥천, 공주, 육군본부가 있는 계룡대는 물론이고 전주 등에서도 문의를 해오거나 직접 방문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하지만 대전시 행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는 내부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는 인접지역에서 문의해오는 사람들에게 해당지역에서 직접 시스템을 만들 경우 우리가 도울 수 있다는 뜻을 밝히고 정중히 거절하기도 하였다. 그런 탓인지 좀처럼 생각보다는 빨리 회원들이 모아지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시에 등록소 운영 책임을 맡았던 담당간사(김성훈-편집자 주)가 직접 친지와 이웃들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일에 뛰어들기도 했다.

4) 홈페이지 개설(tjlets.or.kr)

이와 동시에 12월 초에 ‘한발레츠’의 독자적인 홈페이지(www.tjlets.or.kr)를 개설해 공개하자 이미 가입신청을 한 회원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거래를 시작하게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일부 회원들의 의견과 희망사항들이 방명록에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대구, 인천 등 타지역에서도 축하 메시지가 답지했고, 심지어는 멀리 일본에서까지 한 유학생으로부터 주목할 만한 내용이 담긴 전자편지가 날아오기도 하였다.

5) 창립

2000년 1월에는 ‘한발레츠’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하였다. ‘이사카 아워즈’의 격월간 소식지 《아워 타운(Hour Town)》에서 “우리들은 모두 한 배에 탔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그림을 허락도 받지 않은 채 슬그머니 복제해다가 ‘한발레츠’의 벽걸이 그림을 만들고, 그동안 회원들이 신청한 거래목록을 수록해 A4 용지 8면 크기의 게시판 창간호(2월 1일자)를 제작했다. 그리고 2월 1일에는 ‘샘이 깊은 물’이라는 전통찻집에서 비전향 출소 장기수 가운데 한 분이었던 김용수 선생(현재는 복송되어 북한에 거주함)을 비롯해 70여명의 회원과 가족들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행사를 열었다. 이때는 떡과 과일, 김밥, 음료수 등을 풍성하게 준비하여 회원들 간에 나누어 먹으면서 ‘레츠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취지를 교육하는 간단한 설명회와 함께 홍보 비디오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회원의 도움을 받아 독자적으로 제작한 약 15분 분량의 비디오 상영도 했다. 그리고 우리들의 화폐인 ‘두루’를 사용해 가상으로 거래를 시현해 보는 ‘레츠 게임’과 회원들의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행사도 진행하였다. 이 날 우리들의 모임은 문화방송의 지방 뉴스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 등

에 보도되기도 했다.

6)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로부터 독립

이렇게 ‘한발레츠’라는 이름의 배를 출범시키는 데 ‘대전의제21 추진협의회’가 산파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 사업이 지방의제21 사업으로 정식 채택되지 않은 데다 외부 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운영해보는 것이 어떠한 일부 회원들의 문제제기도 있어 창립행사 이후 독립적인 단체로 운영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회원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레츠 시스템’ 내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고 지역공동체를 복원하는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가진 사람이 많았고, 둘째, 물품을 제공하겠다는 사람보다는 기술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람들이 비교적 많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주나 직장인보다는 전문능력을 가진 실직자, 프리랜서 등이 많았다. 이런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들은 출발부터 또 하나의 ‘동호회’에 그칠 우려가 있고, 지역사회에 대한 파급효과도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 채 시작했다.

7) 관형화폐의 습관

그런 이유 때문인지 창립행사 이후에도 처음 기대했던 만큼의 거래성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거래에 참가해본 회원들은 ‘레츠 시스템’의 창시자 마이클 린턴의 지적처럼 “돈은 인치나 갤런, 파운드와 같이 비물질적인 단위”이고, 철학자 앨런 와트가 말한 바와 같이 “돈이 없기 때문에 서로간에 가치를 교환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측량단위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추상적인 이념에는 동의했다. 하지만 여전히 ‘벌지 않으면 쓸 수 없다’는 기존 화폐제도의 오랜 관습에 많은 회원들이 길들여져 있어 먼저 거래에 나서겠다는 생각 대신에, 누군가가 자신을 찾아주기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풀이되었다.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자연히 타인의 구매욕을 자극할 만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게다가 낮은 사람과 접촉해 협상해야 한다는 어색함, 선뜻 그 가치를 판단하기 힘든 물품이나 용역 앞에서 멈칫거리는 일 등이 자연스레 발생하여 거래건수는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

8) 도약의 계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품앗이 만찬 행사였다. 참여자들 사이에 마음의 장벽을 허물고 거래방법을 학습할 방법이 있었다. 우선 참여자들에게 세 가지를 준비해 오도록 했다. 그 하나가 본인의 먹을 음식 외에 2~3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올 것,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수공예품이나 재활용품물 가지고 올 것, 세 번째로 장기가 있다면 준비해 올 것이다. 이 기획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서로 정성껏 준비한 갖가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사람들은 금방 친해질 수 있었고 가져온 물품을 두루로 직접 거래하거나 수요자가 많을 경우 전액 두루로 경매를 붙여 거래방식을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노래, 악기, 춤 등을 추며 서로가 허물없는 사이로 발전할 수 있었으며 이렇게 관계가 형성되자 서서히 거래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한편, “거래자나 거래품목이 한정되어 있어 마땅히 거래할 것이 없다”는 초기 회원들의 아쉬움은 한의원, 레스토랑 등 안정적인 거래를 제공할 수 있는 회원업소의 가입에 따라 보다 지역화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 이러한 지역화폐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게 되면서 보다 거래횟수가 증가되었다. 물론 단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자영업자

들이 가입하게 되었다고 해서 거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소개한 품앗이 만찬 등을 통해 서로 친숙해진 관계가 전제되어야만 거래가 성사된다. 회원들간의 친숙한 관계없이 가입한 회원업소가 상대적으로 거래가 저조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4. 사업이 가지는 고유한 특징

1) 이웃의 가치가 재발견된다.

“이웃사람의 행위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항상 인식해야 한다. 우리 시대의 생활비용이 크게 증가된 것은 이웃의 상실과 거기에 따라 사람들이 재난을 홀로 감당해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⁴⁾

한발레츠 회원들은 누군가 살면서 필요한 물건이나 일이 있다고 들었을 때 이렇게 말하곤 한다. “레츠 홈페이지에다가 올려 봐!”

한발레츠의 현 두루지기(등록소 실무책임자)인 박현숙 씨는 한발레츠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고부터 본인의 카드 대금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고 한다. 백화점이나 할인점 쇼핑에 들었던 비용, 여가 생활을 위해 써야했던 비용이 새로운 이웃과의 만남을 통해 현금이 들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도 최신 유행하는 제품 보다는 두루로 거래할 수 있는 재활용품을 구매하였고 식료품도 유기농 회원 농가로부터 두루로 거래하게 되었으며 여가생활 역시 회원들과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변화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박현이 회원은 그녀의 오빠가 유아용품점을 운영함에도 그곳을 거의 이용하지 않아 미안해 할 정도가 되었다. 임신복부터 아이를 출산한 이후 배냇저고리, 옷, 신발, 유모차, 보행기, 책, 장난감의 90% 이상을 두루로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새 것보다 이웃의 손때가 묻어있고 그들의 숨결이 느껴지는 물건이 훨씬 정감어리다”고 말한다.

2) 신용을 가장 중요시 하고 신용은 공동체 활동, 거래횟수에 비례한다.

거래 중 월등히 높은 거래가 농산물, 의료관련 거래였다. 먹을거리와 의료는 일상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일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도 일반 상품으로 소비할 때 평소 믿을 수 없는 품목이다. 한발레츠 라는 신뢰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 안전한 먹을거리와 건강의 욕구를 안심하고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평소에 얼마나 왕성하게 공동체 활동에 참여했는가 하는 점이었으며 얼마나 자주 거래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공동체 활동에 참여와 거래횟수가 많을수록 신용이 증가하였으며 신용이 증가할수록 거래도 늘어났다.

3) 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발전할수록 작게 나누어진다.

한발레츠는 처음 시작부터 지역의 공동체 관계, 공동체 경제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를 가지

4) “공동체의 보존과 지역경제” (웬델 베리) 중에서

고 출발하였으므로 지역의 개념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처음에는 이론적으로 지역을 강조하였으나 실제 운영하다 보니 지역의 개념이 레츠의 활성화 정도와 긴밀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거리가 멀면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 뿐만 아니라 거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에너지를 낭비하게 되며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더군다나 광역의 범위에서는 거래 활성화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공동체 관계 형성이 어려운 만큼 회원들은 자기 생활과 활동 범위 안에서 레츠 시스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게 되고 이를 위해 실천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최근 대전지역 마을어린이 도서관을 중심으로 한동 단위 레츠가 4개의 마을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점차 확산되어갈 전망이다.

4)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평등하게 주고받는 관계이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지 못한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자기존엄성을 가진 독립된 인간관계하에서 맺어진다. 한발레츠의 두루는 교환의 매개수단으로서 서로가 잘 할 수 있는 것으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다. 재화를 가진 사람은 재화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로, 기술을 가진 사람은 기술로, 힘을 가진 사람은 힘으로, 시간을 가진 사람은 시간으로 이웃들과 나눈다.

5) 인간관계를 통해 삶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만들 수 있게 된다.

의약분업을 거치며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필요성이 생기자 개원 전의 의사와 함께 의료기관을 만들기로 의기투합한 것이 현재의 민들레의료생협이다. 공동육아어린이조합 소속의 회원들이 두루학교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대안교육을 고민하더니 대전푸른숲 학교를 만들었다.(현재 꽃피는 학교로 변경)

5. 사업개시부터 지금까지의 경과와 주된 실시내용

1) 걸어온 길

<표3. 한발레츠가 걸어온 길>

날 짜	내 용
· 1999년	10월부터 회원모집 시작
· 2000년 2월	70 여명의 회원이 모여 중촌동의 ‘샘이 깊은 물’에서 창립총회
· 2000년 11월	지역통화(LETS)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참여 (미내사클럽, 불교환경교육원 주최)
· 2001년 5월	한발레츠 등록소를 대전의제 21 추진협의회로부터 독립하여 운영하기 시작
· 2001년 5월	MBC 금요매거진, “두루는 나무입니다”(약 40분 방영)
· 2001년 9월	“한발레츠· 나눔과 보살핌의 공동체 실험” 녹색평론 60호에 실림(박용남)
· 2002년 1월	KBS 취재파일 4321, “이것이 도시 품앗이”에 방영

· 2002년 2월	1차 회원 총회
· 2002년 3월	대전광역시 민간단체 등록
· 2002년 4월	대전의료생협(준) 주사무소인 법동으로 등록소 이전 한발레츠 실험 3년 평가 워크샵
· 2002년 8월	두루지폐 발행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가 주는 ‘참여자치시민상’ 수상
· 2002년 8월	대전민들레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약칭 민들레의료생협) 창립 (한발레츠 회원 주도, 303명의 조합원 중 150여명이 한발레츠 회원)
· 2002년 12월	2차 회원 총회
· 2003년 2월	지방의제 21 전국협의회 총회에서 ‘지역품앗이 한발레츠가 우수사례’로 선정
· 2003년 3월	한발레츠 회원 주축 대안학교 준비모임 ‘두루학교’ 인터넷카페에서 활동 시작
· 2003년 10월	등록소 실무자 일일 자원봉사체제로 전환
· 2003년 12월	“레츠·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한발레츠 소개(박용남 지도위원 옮김)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이동영화관 사업 시작(사회복지공동모금회 장비지원)
· 2004년 2월	“풀무공동체를 통해 배우는 지역사회 전망찾기” 참여(홍성 홍동일대)
· 2004년 2월	3차 회원 총회
· 2004년 4월	대전푸른숲 학교 개교(12년제 대안학교, 한발레츠 회원 주도) 대안사회 주민연대 공동소식지 “사람사이” 창간호 참여 (참가단체 등록)
· 2004년 6월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록 한국교육방송 30년, 공사창립 4주년 특집 행복이란 무엇인가?
· 2004년 9월	제 4부 “인간의 얼굴을 한 돈의 세계” (한발레츠 사례를 중심으로 약 40분)
· 2005년 3월	KBS 현장르포 제 3지대 “법동 사람들의 행복 만들기” 방영
· 2005년 5월	일본 “지역통화세미나 in EXPO 2005” 초청받아 사례발표
· 2005년 10월	서울 청사에서 여성 가족부와 “한국공동체화폐연대” 간담회
· 2005년 11월	5주년 기념 “세계 공동체화폐 학술 심포지엄” 개최 한국공동체화폐 연대(가칭) 발족
· 2006년 2월	EBS 하나뿐인 지구 “환경을 살리는 위대한 돈 경쟁을 넘어 나눔으로” 방영(총 45분 분량)
· 2006년 10월	생명평화탁발순례 대전행사 공동주최 품앗이 만찬
· 2006년 10월	RTV, 시민방송 행복한 세상 만들기, “두루두루 기분 좋은 지역화폐”(40분)
· 2007년 2월	6차 회원 총회
· 2007년 4월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 생산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 2007년 7월	한발레츠 장소 이전

. 2008년 2월	7차 회원 총회
. 2008년 9월	녹색평론 102호, 사랑의 경제와 지역화폐운동, 박용남
. 2008년 11월	아름다운 재단 풀뿌리 시민단체 장비지원 사업선정(빔 프로젝트, 노트북 등)
. 2008년 12월	전체회원 620세대, 1056건 거래, 거래총액:181,153,230원(96,016,220 두루)
. 2009년 1월	SBS 그것이 알고 싶다, 700회 특집 2부작 [돈 나라 사람 나라], 제 1부 "돈 세상에서 살아남기"에 대안 사례로 약 10분 방영
. 2009년 2월	8차 회원총회
. 2009년 3월	한발레츠 10주년 기념, 전국 지역통화 활동가 좌담회(30여명 참석)
. 2009년 4월	한발레츠 10주년 기념 행사
. 2009년 11월	아시아 연대경제 포럼 사례발표(지역통화와 의료생협)

2) 운영현황

- ① 총회원수 : 500여명
 ② 거래현황

<표4-회원별 두루 거래현황, 2003.12.31>

년도	거래건수	두루 거래액 (A)	현금 거래액 (B)	거래총액 (A+B)	두루비율 (%)	전년대비 증가율(%)
2008	10,569	96,016,220	85,137,010	181,153,230	53.0	39.9
2007	7,557	73,737,090	68,999,750	142,736,840	51.7	36.9
2006	5,520	56,637,340	36,371,350	93,008,690	60.9	16.3
2005	4,745	65,160,426	56,115,250	121,275,676	53.7	-3.5
2004	4,919	53,211,295	41,045,495	94,256,790	56.5	84.0
2003	2,674	37,516,285	36,955,940	74,472,225	50.4	77.9
2002	1,503	28,403,130	20,493,450	48,896,580	58.1	172
2001	553	8,813,300	8,677,500	17,490,800	50.4	92.7
2000	287	4,866,000	5,427,900	10,293,900	47.3	

<표5. 월별/ 분류별 거래내역표, 2003년도 기준>

구분	거래횟수	두루 거래액	현금 거래액	거래총액	두루 비율 (%)	2007년 거래횟수
농산물	2338	6,160,700	31,926,000	38,086,700	16.2	1636
의료	1742	18,388,610	24,159,210	42,547,820	43.2	1466

가맹점	1292	3,502,500	8,587,900	12,090,400	29.0	1071
재활용	1166	5,546,050	220,900	5,766,950	96.2	602
공정무역	232	561,500	2,907,500	3,469,000	16.2	-
음식	191	769,700	846,000	1,615,700	47.6	-
교육	562	5,446,000	11,803,000	17,249,000	31.6	278
생활용품	319	3,112,800	2,555,500	5,668,300	54.9	80
품	163	5,201,000	1,480,000	6,681,000	77.8	71
대여	102	560,700	602,000	1,162,700	48.2	25
후원	236	19,437,160	49,000	19,486,160	99.7	13
자원활동	895	14,373,500	0	14,373,500	100	335
월회비	1130	2,366,000	0	2,366,000	100	1174
급여	201	10,590,000	0	10,590,000	100	179
생산소모임	-	-	-	-	-	596
소계	10569	96,016,220	85,137,010	181,153,230	53.0	

③ 등록소 운영현황

가. 등록소 실무자 현황: 실장 1명 (상근, 자체 명칭은 두루지기), 협력두루지기(자원봉사) 3인

나. 등록소 재정

- 수입: · 월 2,000원의 회비
 - 월 5,000원 이상의 후원회비
 - 총 거래액의 5% 수수료
- 지출: · 실무자 인건비
 - 인쇄편집비
 - 홍보비

다. 등록소의 업무

- 일상사업: 회계, 회원계정관리, 홈페이지 관리
- 조직기획사업: 품앗이 만찬, 품앗이 학교, 유기농 직거래, 회원간 거래교섭, 소모임 지원
- 교육홍보사업: 회원가입 및 교육, 소식지 발행
- 연대사업: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활동

④ 주요사업-한발레츠의 기본활동

<표6. 한발레츠 주요사업>

사 업 명	사 업 내 용
등록소 일상 업무	소식지 발행(격월), 품앗이 도우미(6개월 1회), 홈페이지 운영(메인), 계정관리(매일)

품앗이 만찬	두 달에 한번 저녁에 모여 먹을거리를 나누어 먹는 모임. 각자 만들거나 구입한 음식들을 2~3인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양을 준비해서 모인다. 이날은 회원 친목도모, 거래 시 발생한 문제점을 의논, 물품을 두루로 교환하고 매회 100명 이상이 참여한다.
품앗이 학교	회원들이 보유한 다양한 기술과 능력을 배우고자 하는 다수의 회원을 모아 강좌형식으로 진행한다. 회원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시 개최하며 수강료는 전액 두루가 원칙이다. 캠매탄출학교, 목공교실, 도예교실, 문화유산 답사학교, 우리 옷 만들기 등이 있다.
물품공유소	각자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품이나 자주 쓰지 않아 구입해 놓고도 잘 쓰지 않는 물품. 필요하기는 하나 그것이 환경을 해치는 것이어서 이용을 억제해야 할 물품을 등록소에 등록시킨 후 회원 사이에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 트럭, 승합차, 고가의 옷, 디지털 캠코더, 빔 프로젝터 등이 등록되어 있다.
농산물 직거래	유기농 반찬가게, 도농두레, 밥상 나누기를 펼치는 생활협동조합의 하나인 두루 부역으로 발전하였다가 중단되었고 현재 농산물 생산자모임이 결성되었다.
음식사업단 두루잔치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에 의한 사업단으로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음식을 만들어 판매. 도시락, 잔치음식, 선물음식 등을 만들. 현재 10명의 참여자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음.
이동영화관	‘문화소의 계층을 위한 이동영화관’으로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장비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이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농민, 아이 때문에 영화관에 갈 수 없는 주부도 대상으로 한다.
교육활동	전국의 지자체, 주민조직, 시민사회단체, 학교 등에 지역통화 운동에 대한 소개. 품앗이 놀이 개발 보급을 통한 지역통화 운동 확산에 주력
연대활동	레츠관련 단체, 기타 시민사회단체와의 사안별 연대 대전지역마을어린이 도서관운동의 마을돈 사업과 연계시작

V. 지역화폐와 의료생협

1. 한발레츠로부터 의료생협까지

한발레츠 설립 초기 한방의사가 가입함으로써 거래 활성화에 기여(보험진료시 본인부담금 전액 두루, 비보험 진료 50% 두루 적용)하였다. 얼마 후 양방의사가 가입하면서 지역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속 의사들이 참여하게 되었다. 이들은 의사라는 전문가로서가 아니라 이웃으로서, 생활인으로서 사람들과 사귀게 되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의료와 건강과 관련한 상담이 이루어지면서 주치의로서 역할하게 되었다. 이러한 신뢰관계를 통해 의료생협을 설립할 수 있었다.

설립 초기 이사회에서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의료생협에서의 지역화폐 사용을 유보하였다. 이에 한발레츠 회원 출신의 의료생협 직원들이 월급의 30% 가량을 지역화폐로 받기로 결의함에 따라 의료생협에서 본격적으로 지역화폐로 진료비를 계산하게 되었다.

현재는 급여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받기를 희망하는 직원이 증가하고 조합원의 활동에 지역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2. 새로운 도전 - 건강화폐

스테판 브룬후버(Stefan Brunnhuber) 박사는 2005년 대전 한밭레츠를 방문하여 그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도입하려고 하는 건강 화폐 시스템을 소개하였다. 독일 지방 의료보험회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건강 화폐(Health Token)"를 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며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한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같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역별로 있다고 했다. 의료보험회사는 가능한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싶어 한다.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사람들이 질병 예방을 철저히 하는 것이고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돌볼 수 있어야 한다. 건강 교육과 생활습관을 건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작 이 일을 소홀히 하게 된다. 브룬후버 박사는 그 이유가 교육이나 생활습관을 건전하게 하는 일은 그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건강 교육을 받거나 금연, 혹은 살빼기를 실천할 때 그 대가로 건강 화폐를 주자고 제안했다. 의료보험료를 내는 지역주민들이 건강 화폐를 모아 의료보험회사에 주면 그만큼 보험료를 줄일 수 있고 야채가게 등의 회원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주민 사이에 유대관계가 깊어지게 되고 이 또한 지역의 건강수준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했다.

이윤을 중요시 여기는 의료보험회사가 이러한 지역화폐 시스템을 이해하고 동의하느냐고 질문하였더니, 바로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답변하였다. 의료보험회사의 관심은 오로지 비용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할 때 지역화폐 운동의 의의를 말할 필요는 없었고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집중 부각했다고 웃으며 말했다.

3. 건강화폐의 적용

1) 개요

조합사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건강 화폐(두루)를 지급함.

2) 제안배경

임원, 위원회, 지역모임, 소모임 외 각종 의료생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조합이용에 혜택을 줌으로써 조합을 활성화하도록 함. 생활협동조합의 성패의 관건은 조합원의 참여에 있는 만큼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그에 따라 혜택을 지급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봄. 혜택을 원치 않는 경우 자신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계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함.

3) 방법

조합의 각종 활동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두루나 일반진료비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여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 이것은 일종의 이용고 배당이 될 수 있음. 병원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병원이용에 따른 이용고 배당은 현재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각종 공동체 사업, 예방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정해진 기준에 따라 일반진료비 할인, 두루지급을 할 필요가 있음. 임원이나 위원회 활동은 물론 건강교실, 건강실천단에 참여하는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예를 들어 건강실천단에 참여하여 몸무게를 5kg 감량하기로 하여 이 과정에 공동체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한 조합원에게 혜택을 줄 수 있음.

4. 건강화폐 실적

구분	항목	금액(두루)
수입 20,495,110 두루	의원/한의원/치과 진료수입	20,495,110
	후원금/장비대여/식대등	
지출 18,498,500 두루	급여	6,450,000
	자원활동	3,735,000
	건강증진활동	1,765,000
	이사회 활동	2,840,000
	위원회 활동	1,100,000
	대의원 활동	415,000
	인쇄출판비	1,038,000
	소모품 구입	93,500
	식료품 구입	162,000
	기타 지출	900,000
수지합계	수입-지출	1,996,610

VI. 지역통화운동의 확산을 위하여-품앗이 놀이(Do it LETS)

1. 시스템 설계의 기본방향

- 1) 지속성: 자유로운 가입과 탈퇴를 보장하되 개인의 가입과 탈퇴에 크게 영향받지 않을 지속 가능한 시스템 구축
- 2) 개별성: 참여자 각 개인의 삶에 필요한 것을 돕고 스스로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나누기
- 3) 전체성: 필요한 것을 얻고 할 수 있는 것을 주기 위하여 1:1 품앗이가 아닌 다자간 품앗이
- 4) 다양성: 욕구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공평한 교환을 위해 거래품목별 가치의 차이를 반영하여 교환할 수 있는 화폐를 발행
- 5) 투명성: 계정방식 채택
 - 화폐발행비용이 들지 않음
 - 거래자, 거래품목, 화폐발행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음

- 거래 학습효과와 새로운 거래를 창조할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음
- 6) 자발성: 시스템 관리자나 등록소가 아닌 거래 당사자 사이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교환

2.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동작업(Workshop) 준비

- 1) 인원확보: 거래의 안정성과 다양성을 위해 적어도 20인 이상 참여
- 2) 장소확보: 20인 이상이 참여하여 공동작업을 할 수 있는 아늑하고 집중된 공간
- 3) 배치: 서로 마주볼 수 있는 원탁형 배치가 이상적임.
- 4) 시간확보: 2시간 30분~3시간
- 5) 장비와 기자재: 한발레츠 다큐멘터리 파일, 동영상 상영에 필요한 장비 일체, 칠판
- 6) 소도구: 필기도구, 메모지, 전지

3. 품앗이 놀이

- 1) 정의
 - 품앗이 놀이는 자신이 요청할 것과 제공할 것을 공동체에 공개하여, 이것을 나누고 협동할 수 있도록 참여자 스스로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의 규칙을 만드는 공동체 회의를 말한다.
- 2) 개념
 - 이것은 특히 지역화폐 운동의 한 형태인 레츠 LETS(Local Exchange & Trading System)의 운영방식을 따른다. 따라서 품앗이 놀이의 영문 표기는 레츠를 하자라는 의미로 <레츠를 하자(Do it LETS)>라고 부르기로 한다.
- 3) 의의
 - 이웃이 서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지를 알게 된다.
 - 돈에 가려 의식하지 못하던 사람, 자연 그것들 사이의 관계가 드러난다.
 - 자연스럽게 이웃과 사귀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치, 이웃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할 수 있다.
 - 2~3시간의 워크숍을 통해 레츠 시스템을 이해하고 바로 실행 가능하도록 한다.

4. 품앗이 놀이 요약

- 1) 서로 뜻과 마음을 모으고 부르기 쉬운 돈의 이름을 정한다. (마을의 상징, 특산물, 살림계의 비전 등을 담은 말)
- 2) 요청할 것을 각자 적어 발표한 후 서로 보완한다.
- 3) 제공할 것을 각자 적어 발표한 후 서로 보완한다.
- 4) 이 모두를 한 곳에 모아 품앗이 목록을 만든다.
 -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한데 묶어 정해진 장소에 게시하거나 간단한 문서를 만든다.
 - 인터넷 홈페이지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어도 좋다.
 - 이 일을 진행할 거래목록 관리자를 정한다.
- 5) 요청목록과 제공목록을 대조하여 서로 나눌 수 있는 것을 찾는다.
- 6) 찾아낸 것 중 하나를 선정하여 제공자와 요청자를 초대하여 역할극을 한다.
 - 연락방법, 인사, 나눌 내용 확인, 금액 정하고 합의하기 등을 상황을 주고 직접 역할에 따라 행동해 본다.
- 7) 거래 후 계정정리를 위하여 계정관리자를 정한다. 거래목록 관리자와 겸임할 수 있다.

- 8) 계정관리자가 왜,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를 계원 모두가 토론하고 합의한다.
- 9) 계정관리자와 약속된 거래 보고자(주로는 제공자)가 다시 역할극을 한다. 거래 일시, 요청자, 제공자, 거래품목, 거래금액은 필수 기록 항목이 된다.

Ⅶ. 전국 지역문화운동단체 현황

<대전·충남>

지역품앗이 한밭레츠
호숫가마을 품앗이
관저품앗이
중촌동짜장 어린이도서관 품앗이
마루어린이 도서관 품앗이
(사)풀뿌리 사람들 품앗이사회학교 품앗이
중구 품앗이(대전 중구청)
서천 레츠

<서울·경기>

과천 품앗이
어울림 품앗이
성미산 지역화폐
성남 문화통화
미래를 내다 보는 사람들
의정부 레츠

<인천>

이웃사랑 품앗이
인천의제 21추진협의회 녹색경제분과
인천 부평구 마을 공동체 동네야 놀자
인천연대

<대구경북>

구미사랑고리(구미)

<부산경남>

사하품앗이
가마골품앗이

<기타>

한국 여성노동자회 전국 지회(각 지부)

두레생협연합회(소속 각지역 생협)

간디학교(제천)

꽃피는 학교(전국)

과천 품앗이의 시작과 현재

김영희
(과천품앗이 운영위원)

● 과천품앗이의 시작과 현재

90년대 말 많은 지역에서 레츠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지요. 국내 레츠단체들의 활동내용들이 여러 경로로 소개되면서 레츠에 대한 욕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천은 2000년 10월 5명의 회원으로 첫 출발을 하였고 매년 많은 회원들이 오가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3년 경기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을 하여 활동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업으로 자기 컵 갖기 운동, 양파망 재활용, 친구야 노을자 전래 놀이, 면생리대 만들기 등 1회용이 아닌, 지속가능한 친환경적 삶을 위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년 현재 180여명의 회원이 30 가지 이상의 품을 나누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과천 품앗이는!!

현금 없이 노동력이나 물건등을 주고받는 제도

1 대 1로 상호간에 주고받는 종래의 품앗이 제도를 보다 확장하여 과천지역주민들이 다자간에 노동력이나 물건 등의 자원을 교환하는 제도입니다. 이때 교환을 쉽게 하기 위해 아리라는 지역화폐를 이용합니다.

가령 과천 품앗이 ‘가’회원은 ‘나’회원에게 자녀의 수학과외를 제공하고, ‘다’ 회원으로부터 컴퓨터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회원 ‘가’‘나’‘다’ 사이에는 한국은행권이 오고가는 것이 아니라 과천 품앗이에서 회원들이 서로 창출해내는 대안 화폐 (지역화폐) ‘아리’를 주고받고, 품앗이통장에 기재하면서 거래를 증명합니다.

● 과천 품앗이 화폐 ‘아리’

과천의 상징인 토리 아리에서 따온 지역화폐 이름입니다.

아리는 회원 각자가 만들어냅니다. (‘원’은 한국은행이 만들지요.) 기준은 노동력의 제공 시간입니다.

다른 회원에게 한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면 일만 아리가 생깁니다.

한 시간 서비스 제공 = 1만 아리 가 기준입니다.

가령 아기 돌보기 1시간 제공한 것과 수학 학습지도 1시간 제공한 것을 똑같이 1만 아리로 계산합니다. 이것은 노동에는 귀천이 없다고 생각하는 과천품앗이의 소중한 약속입니다. 모든 노동은 동등합니다.

● 과천품앗이의 품들

과천 품앗이에서 나누는 품목은 아주 다양하며, 끊임없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돈 없이도 살 수 있는 세상을 꿈꾸며, 생활에 필요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품앗이 안에서 서로 나누며 해결할 수 있기를 지향점으로 삼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것 아니다 싶은 일도 전문 능력 못지않은 귀한 삶의 조건이 됩니다. 가령 시장 봐주기, 청소해주기, 반찬해주기, 빌려주기 등 삶의 모든 영역이 품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나눌 품목이 없이 가입해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의 능력을 품앗이 안에서 발견하고 계발 할 수 있습니다.

● 과천품앗이 운영방법

과천품앗이는 별도의 공간과 상근자 없이 운영위원회에서 분과별 활동을 통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매월 월례회와 한해 한번 총회 주최하고 회원들의 품 나누기를 도우며, 아리관리 등 필요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합니다.

운영위원의 분과별 활동내용은

회계 - 회비 출납 기록

회원관리분과 - 회원의 거래내역 파악과 거래 아리 집계 총 거래건수, 거래 아리 등의 통계 회원 간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노력

교육분과 - 신입회원 교육, 전 회원을 위한 재교육

소식지분과 - 매월 소식지 편집, 언론매체에 품앗이 홍보

행사분과 - 월례회, 만찬 등 각종 행사 준비, 촬영

홍보분과 - 언론매체에 품앗이 홍보.

품앗이사업부 - 과천 시민과 함께 하는 품앗이의 연간 사업 진행

고충상담위원회 - 품앗이 활동을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상담

● 회원의 자격

- 과천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이 과천시일 경우에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성별,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회원의 의무

신입회원 교육 이수 - 가입시 1회 2시간의 신입회원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신입회원 교육을 받아야만 회원가입이 되며 품앗이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연회비 납부 - 1년에 1만원입니다.

월례회 참석 - 매월 첫 일요일이 지난 목요일 오전 10시에 월례회가 있습니다. 회원들의 만남과 거래가 이루지는 장입니다.

3,6,9 월에는 저녁 7시 만찬이 있습니다. 각자 먹을 음식을 준비하여 교제를 나눕니다.

거래내역 보고 - 월례회 참석할 때 전달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거래내역서를 제출합니다.

혹은 카페의 ‘품을 나누어요 / 거래내역서’ 란에 올립니다.

● 품앗이 소식지

월 1회 년 12회 품앗이회원의 모습과 활동내용 공지사항들을 담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품앗이 회원의 손으로 매월 빠짐없이 만들어 가고 있는 품앗이의 얼굴입니다.

● 2008년 과천 품앗이 거래내역통계 (2007.11~2008.10)

매월 월례회를 통해 제출된 자료의 통계이며 미보고 된 (약30~40%)의 거래내역은 불포함

품목	건수	총건수	아리(+)	아리(-)	건수 비율	총건수비 (%)
학습	1,144	5,336	33,164,500	34,674,500	16.4	50.3
미용	341	356	2,535,000	2,443,000	4.9	3.4
음식	1,634	1,443	8,166,600	7,808,650	23.5	13.6
출패션	87	60	781,000	457,500	1.3	0.6
차량	113	136	1,306,000	1,028,000	1.6	1.3
가사도움	482	431	8,432,700	6,993,700	6.9	4.1
수공예	549	492	7,224,100	6,174,500	7.9	4.6
아나바다	804	683	5,290,500	5,572,900	11.6	6.4
의료	-	-	-	-	-	-
월례회	387	336	1,890,000	221,250	5.6	3.2
운위	193	164	3,755,000	93,000	2.8	1.5
기부	18	18	850,000	1,026,500	0.3	0.2
기타	267	241	3,601,950	3,303,565	3.8	2.3
아이돌보기	15	121	2,224,000	630,000	0.2	1.1
가입아리	22	22	630,000	30,000	0.3	0.2
탈퇴아리	2	2	-	60,000	0.0	0.0
대여	95	79	350,000	315,000	1.4	0.7
소모임	272	226	958,500	1,137,000	3.9	2.1
수수료	532	471	9,420	4,337,781	7.6	4.4
계	6,957	10,617	80,405,770	76,306,846		

● 2008년 월별 거래현황 (2007.11~2008.10)

11	502	1,246	7,974,000	7,098,250	6.8%	11.4%
12	512	798	5,563,000	5,624,998	6.9%	7.3%
1	821	1,491	11,141,200	8,432,850	11.1%	13.6%
2	632	1,118	7,926,400	7,430,465	8.5%	10.2%
3	691	660	8,437,700	8,439,095	9.3%	6.0%
4	566	450	6,550,450	6,254,235	7.6%	4.1%
5	718	775	7,294,800	7,138,548	9.7%	7.1%
6	591	777	5,346,600	5,926,525	8.0%	7.1%
7	608	823	6,599,000	5,135,980	8.2%	7.5%
8	568	989	6,553,000	6,370,250	7.6%	9.0%
9	678	1,061	6,183,400	6,468,300	9.1%	9.7%
10	542	764	5,475,500	5,056,265	7.3%	7.0%
계	7,429	10,952	85,045,050	79,375,761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한 의정부 레츠

한미경

(의정부 레츠 준비위원장)

의정부 레츠는 생활복지센터, 지역의 시민단체, 공동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준비하고 운영을 하였다. 현재 의정부 레츠는 의정부지역을 중심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고 처음 목표했던 임대단지 내 주민들이 함께 하지 못하나 이후 임대단지 등 경제활동이 낮은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가가 과제이다.

의정부 레츠가 생겨나기까지는 여러 계기가 있었다.

그 중 하나로는 2007년 '의정부여성회' 경기도 여성발전기금 지원 사업 <달라지는 마을 여성이 바꾸는 공동체문화>_ 마을문화공동체 모범사례 견학으로 7월16일 대전 한밭레츠를 방문하였던 것이 큰 계기가 되었다. 경제공동체인 레츠를 알게 되고 궁금해 하고 지역에서 하면 정말 좋겠다는 바람들을 함께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주거복지연대 의정부광역생활복지센터'에서 의정부센터의 사업으로 레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센터는 임대단지를 중심으로 방과 후 공부방과 일자리사업을 진행하였다. 2008년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으로 단지에서 주민들의 구직활동을 하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사업을 고민하고 준비하였으나 시행하기에 알맞은 아이템을 찾지 못했다. 생활수선 사업으로 '칼갈이'를 중심으로 구두수선, 가죽공예를 고민하였으나 사업비, 일자리로서의 부족함이 있어 중단하게 되었고 2009년 사업으로 일자리사업을 고민하던 중 경제공동체인 '레츠'가 일자리사업으로도 가능하겠다는 판단을 하여 의정부 사업으로 계획서를 내고 1월 상근인력을 두고 준비하면서 4월에 레츠 공개 설명회를 통해 지역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다.

경제공동체인 레츠가 노동력을 기반으로 하는 나눔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품을 통해서 레츠화폐를 만들어 그것으로 레츠 안에서 나눔 가능한 것을 교환하게 되면 단지내 주민들에게 경제적인 면에서도, 정서적인 면에서도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했었고 따라서 레츠가 수익창출을 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레츠의 기반이 다져지고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품이 있으면 그것으로 사회적 기업으로 특화를 할 수도 있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시작을 하였다.

물론 레츠가 가진 여러 가지 철학과 기능은 다양하지만 사회적서비스와 수익창출을

고려해야하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시작하는 것이어서 경제적인 측면을 더 많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 과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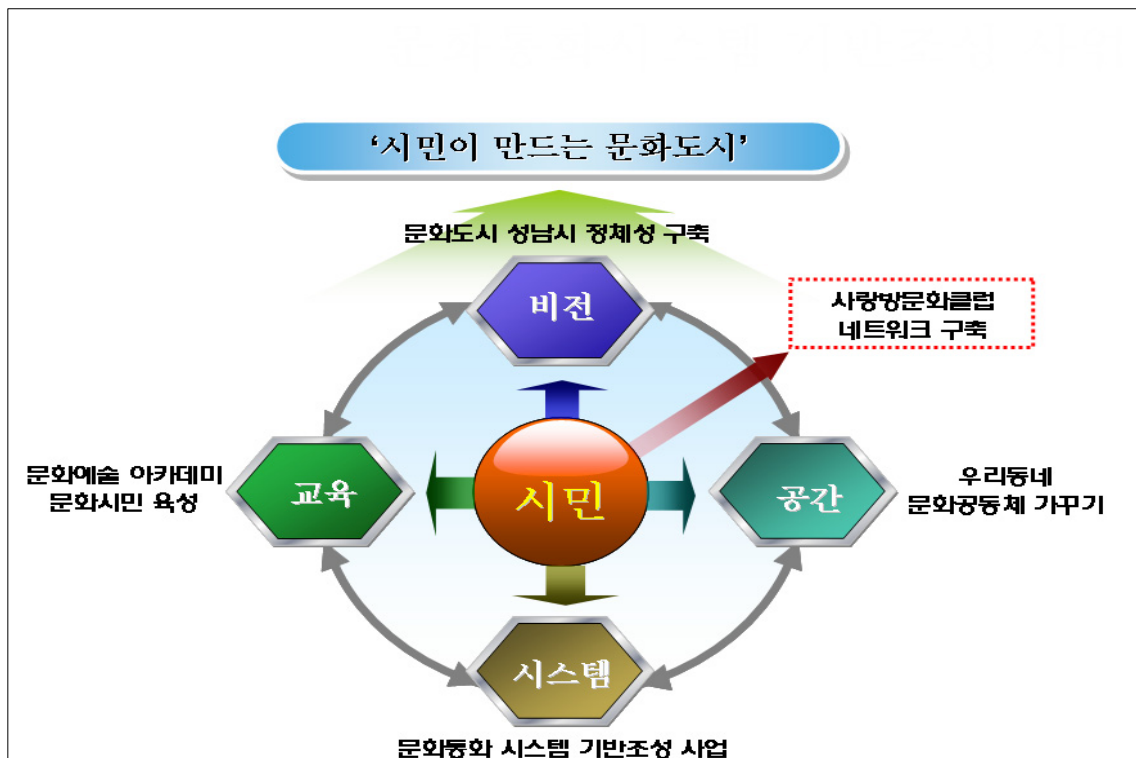
레츠가 4월에 출범을 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카페를 만들어 카페를 통해 나눔을 하고 품앗이만찬, 회원의날, 품앗이 학교 등을 진행하면서 회원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나눔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처음 고민했던 수익성과 레츠와의 관계를 풀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레츠는 회원 스스로가 참여하고 스스로 품을 나누고 학교를 개설하는 시스템이어서 실제 레츠 안에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을 사업으로 정리해내는 것이 쉽지 않았다. ‘레츠가 사회적 기업으로 합당한가?’하는 질문들도 많았고 중앙에서는 레츠가 지역공동체활동으로서 의미는 있지만 사회적 기업으로는 무리가 있고 실현가능하지 않다고 판단을 하여 2010년 사업에서는 제외되었다. 예비 사회적 기업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액을 달성하는 것에 무리라는 것이고 1년간 회원수입이외에는 다른 수입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못했다. 눈에 보여지는 수익을 내지는 못했지만 회원들이 자기의 품을 나누며 화폐를 버는 방식은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일자리 창출이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정한 틀에 맞춰져야 하는 제도권의 관점과는 맞지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좀 더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좀더 확대하여 지원하는 체계라면 가능 하다고 본다.

일회적인 일자리창출이 아니라 삶에 영향을 주고 삶이 변하며 안정적이고 행복한 일자리를 레츠는 함께 하고 있는 것이기에 충분히 내용면에서는 사회적기업의 목적에 맞는 일이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이고 기반이 된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공공성, 많은 사람들에게 지속적인 힘이 되는 것이 레츠이기에...

현재 주거복지연대 예비 사회적 기업이 탈락되었다. 따라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출발은 하였으나 그것의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고, 의정부 레츠는 다시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나누면 배가 되는 문화생활의 즐거움

문화통화 기반조성 시스템 사업



□ 성남문화통화

성남지역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통화
를(님실) 사용하여 성남시민, 문화
예술동호회, 전문 혹은 아마추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창작활성화와
문화생활의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
한 새로운 시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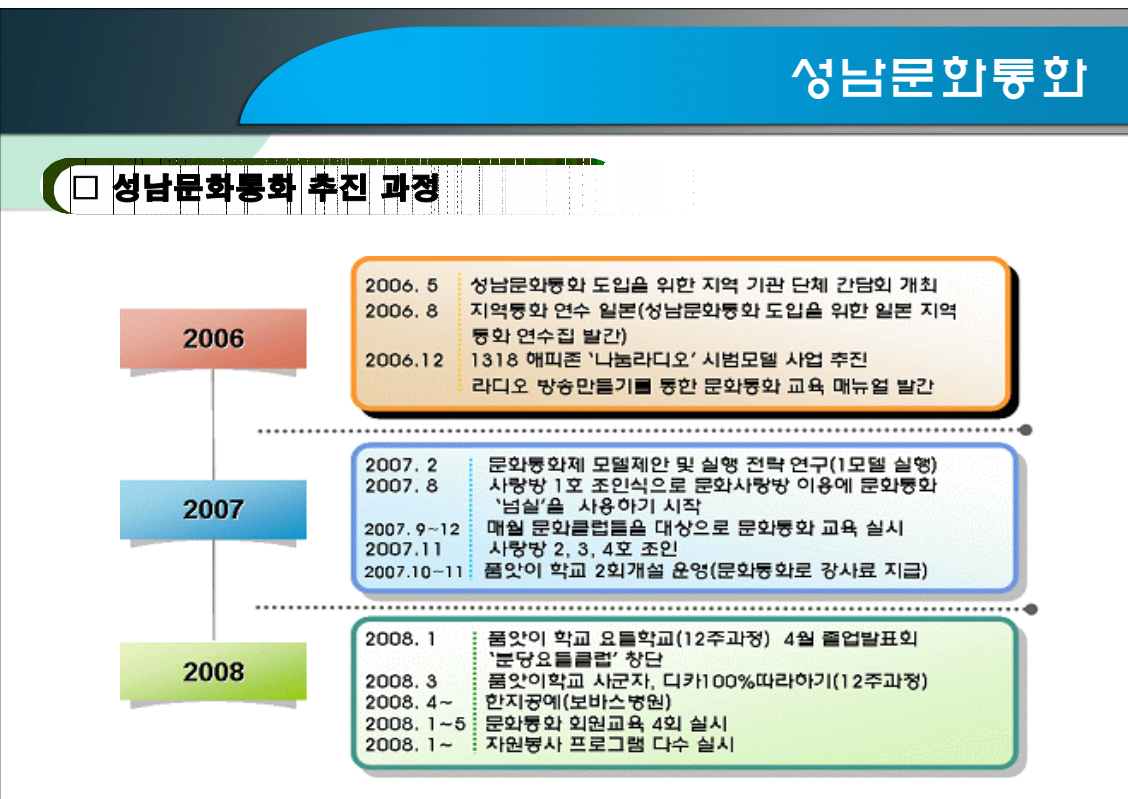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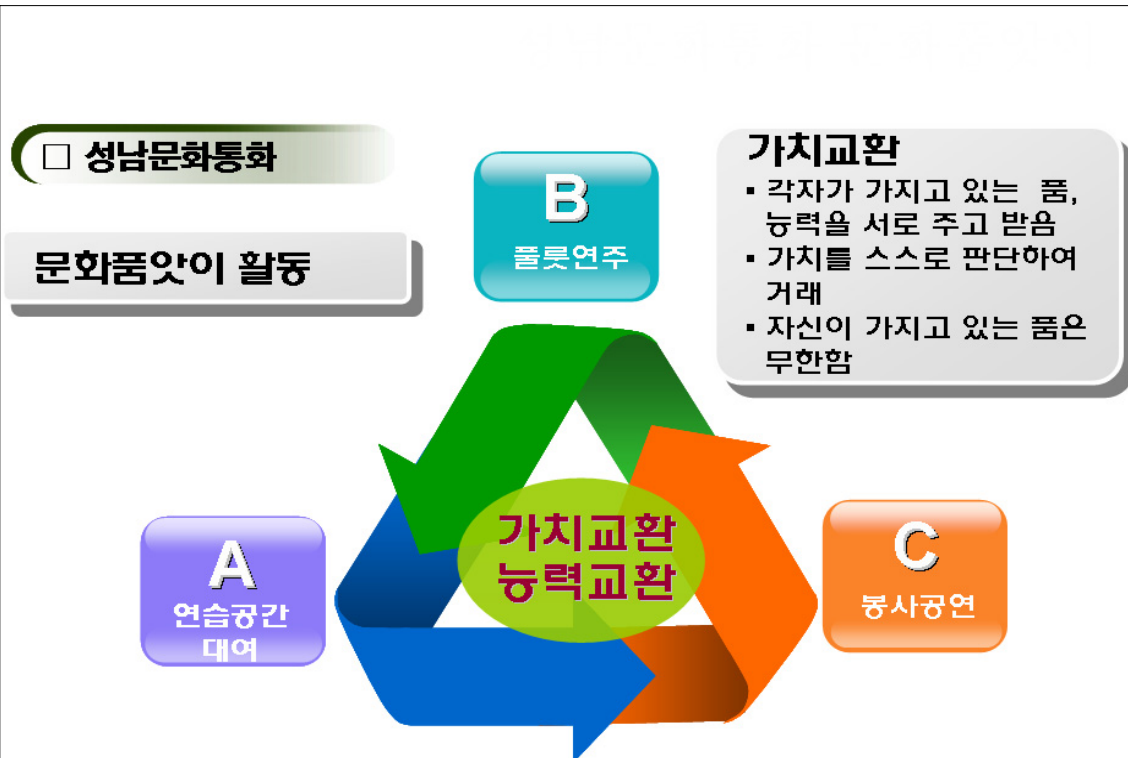
화폐단위: 100원=100님실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마련

창조-매개-향유의 선순환
문화생태계 기반조성

지역 문화가치 나눔 운동을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성남문화통화 문화사랑방

□ 만나교회(사랑방 1호)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393



성남문화통화 문화사랑방

□ 보바스기념병원(사랑방 2호)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310-8

위치	공간 동칭	사용 가능 인원	부대 시설					임대 가격 (1시간)
			피아노	보편대	음향	거울	의자	
로비층	보바스 홀	100명	○	X	○	X	○	10,000



성남문화통화 문화사랑방

□ 풀시티 갤러리 카페(사랑방 3호)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80-2

공간 명칭	사용 가능 인원	무대 시설			보실가격	
		피아노	음향	의자		
카페	20명	X	X	O	연습, 회의 (1시간)	5,000
					갤러리전시 (1일)	30,000



성남문화통화 문화사랑방

□ 분당서현청소년 수련관(사랑방 4호)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서현1동 312-5

위치	공간 명칭	보실 (1시간)	사용 가능 인원	무대 시설						비고
				피아노	보연대	음향	거울	의자	조명	
지하2층	공연장	10,000	122석	O	O	O		O	O	그랜드피아노
지하2층	댄스룸	5,000	30명			O	O			
지하2층	밴드실	5,000	15명		O	O	O	O		드럼/건반/베이스 앰프/기타앰프



성남문화통화 문화사랑방

□ 한국학중앙연구원(사랑방 5호)

■ 위치 :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길 110

위치	공간명	사용가능 인원	부대시설				념실가격 (1시간)
			피아노	음향	프로젝트	의자	
대강당 건물	대강당(1층)	220명	○	○	○	○	25,000념실
	강의실(2층)	100명		○	○	○(고정)	10,000념실
	세미나실(2층)	60명		○	○	○(고정)	7,000념실



성남문화통화 문화사랑방

□ 성남 노인보건센터(사랑방 6호)

■ 위치 :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1동 269-10

위치	공간명	사용가능 인원	부대시설				념실가격 (1시간)
			피아노	음향	프로젝트	의자	
지하1층	대강당	200명		○	○	○	20,000념실
지하1층	강의실	50명		○	○	○	10,000념실
지하1층	카페 테리아			○	○	○	7,000념실
2층	요법실	용도에 따라					별도협의
2층	휴게실	용도에 따라					별도협의



성남문화통화 문화사랑방

□ 수진동 성당(사랑방 7호)

■ 위치 : 성남시 수정구 수진1동 664

위치	공간명	사용가능 인원	부대시설				별도 협의 비밀가격 (1시간)
			피아노	음향	프로젝트	의자	
본관	대회의실	100명	○			○	별도 협의
별관	1강의실	10명				○	
	2강의실	20명				○	
	3강의실	7명				○	
	카페 엔젤스	50명				○	













1

등록된 내용을 근거로 연락을 한 후, 서로 의견 조율을 통하여 거래합니다.

2

양측은 각각의 문화품앗이 통장에 날짜와 거래내용 및 가격을 써 넣습니다. 통장을 바꾸어 서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자기사인을 하면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2007.11 문화통화 두번째 품앗이 학

교

성남문화통화

□ 성남문화통화 회원 및 거래 현황

■ 개인회원 : 334명

■ 클럽회원 : 70개 클럽

■ 기관회원 : 9개

* 회원 주요 구성

- 개인회원은 90% 이상이 사랑방클럽 회원
- 클럽회원은 모두 사랑방문화클럽
- 기관회원은 사랑방공간 7개, 일반기관(국군수도병원, 호스피스센터) 2개

■ 공간이용 : 매주 평균 3회 이용

■ 교육 품앗이 : 매주 평균 2회

■ 공연 및 전시 품앗이 :

매월 평균 1.5회

■ 문화장터 : 매년 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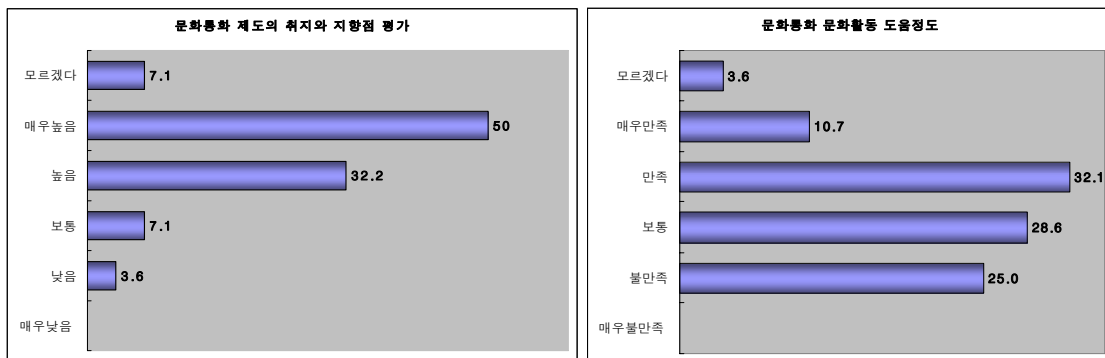
■ 티켓거래 : 매월 평균 0.5회

* 주요 거래 형태

- 공간이용은 주로 연습 목적으로 사용
- 교육품앗이는 단기 프로그램보다 장기 프로그램이 만족도가 높음
- 문화장터의 경우, 클럽들의 작품 위주로 거래

성남문화통화

□ 성남문화통화 이용 만족도(08년)



성남문화통화



성남문화재단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성남문화통화는
이웃간 함께 할 수 있는
나눔의 기쁨을 드립니다.

사랑방홈페이지
www.clubsb.or.kr

담당 : 유상진 과장
031-783-8124
anchgin@snarl.or.kr

문화통화 지역사회 연계 발전방안 세미나

발 행 인 - 이대엽 · 이종덕

편 집 인 - 노재천

기획총괄 - 박승현

기획진행 - 유상진

발 행 처 - 성남문화재단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757번지 성남아트센터

[www. sncf.or.kr](http://www.sncf.or.kr)/www.snart.or.kr/www.clubsb.or.kr

인 쇄 - 새한칼라인쇄

발 행 일 - 2009. 12.

© 성남문화재단



